

---

碩士學位論文

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小說指導 研究

— 「무정」·「운수 좋은 날」·「메밀꽃 필 무렵」·「광장」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徐 宗 必

1998年 8月

# 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小說指導 研究

— 「무정」·「운수 좋은 날」·「메밀꽃 필 무렵」·「광장」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徐 宗 必



徐宗必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小說 指導 研究

徐 宗 必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18종 문학교과서의 소설 가운데 10종 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무정」,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필 무렵」, 「광장」 등 4편을 비교 분석하여 학습에 필요한 소설의 요소를 작품별로 제시하여 중심 요소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단원명과 작품의 수록내용(범위), 학습 목표, 학습 문제들을 고루 검토하고 재해석하여 소설지도에 필요한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교과서에서 추출된 공통 요소와 소설의 요소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소설지도의 교수·학습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실제 지도단계까지를 제시하였다.

소설의 요소로서, 서사 구조는 교과서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간단한 구성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서는 학습자들의 소설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내용 순서에 따른 새로운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소설지도에서는 작중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작품 이해의 관건이 되는 요인이라 판단되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요령과, 그 구체적 증거를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배경은 인물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주제와의 관계도 논의하여 학습자들에게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품 속의 문장을 통하여 문체와 기법의 문제를 학습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제와 사상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 경향을 관련시켜 제시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도록 제시했다.

다음은 단원명과 학습 목표, 학습 문제에서 중점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무정」은 장편소설이어서 대부분 교과서가 작품의 결말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수록했다. 신소설과 비교문제, 갈등과 화해 구조, 당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 이광수의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등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할 과제이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운수 좋은 날」에서는 제목의 내포적 의미, 구성 단계와 구성상 특징, 작중 인물의 내면적 갈등 원인, 시간적·사회적·자연적 배경, 인물의 성격과 복선, 작품의 문학적 경향 등을 묻는 문제들로 요약하였다.

「매밀꽃 필 무렵」에서는 언어 표현 요소가 갖는 미적 기능의 중요성, 한국 민족의 인연, 유랑, 만남의 원형 의식, 달밤이 갖는 상징적 의미, 허생원과 나귀의 유사성, 다른 소설과 비교한 구성상 특징, 주인공의 인생관, 인물의 성격 등이다. 그런데 허생원의 떠돌이 삶과 동이에게 앞으로 전개될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특이했다. 소설의 결말 이후를 상상하면서 인간적인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학습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장」은 모든 교과서가 소설의 후반부인 이명준이 마지막 회상과 선상에서의 의식 상태, 그리고 자살하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선택의 귀결이 죽음으로 이르는 이유, '밀실, 광장,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 주인공이 인식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의 사랑 비교 등을 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소설지도의 실제 과정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5단계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면화 단계이다. 내면화 과정은 문학적 체험의 심화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면화 단계의 강조는 소설 지도의 실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단계는 자유토론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구상하는 단계로 활용하고자 했다.

학습 도구로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며, 특히 학습자에게는 학습 자료의 거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이전에 교재를 치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기존의 논문들이 학습지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학습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연구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에 걸맞는 연구물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소설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 目 次

## 〈國文抄錄〉

I. 序 論	1
1. 問題 提起	1
2. 研究史 檢討	3
3. 研究 方法	5
II. 作品의 分析的 理解	8
1. 敘事 構造	8
2. 人物과 背景	20
3. 文體와 技法	29
4. 主題와 思想	33
III. 小說 指導의 實際	41
1. 小說 指導의 要點	41
2. 小說 指導의 段階	56
3. 小說 指導의 實際	60
IV. 結 論	63
參考文獻	67
Abstract	70
附 錄	72

## 表 目 次

〈표 - 1〉 「무정」 수록 교과서 일람 .....	42
〈표 - 2〉 「운수 좋은 날」 수록 교과서 일람 .....	45
〈표 - 3〉 「메밀꽃 필 무렵」 수록 교과서 이람 .....	49
〈표 - 4〉 「광장」 수록 교과서 일람 .....	52
〈표 - 5〉 소설 지도 과정 .....	58
〈표 - 6〉 소설 지도의 실제 .....	60



# 1. 서론

## 1. 문제 제기

이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문학 교육은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개인의 삶을 경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즉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발전된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행위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여러 갈래들 중 소설은 특히 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동리의 「무녀도」에서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의 갈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육은 문학의 본질과 그 기능면에서 다른 어느 교과와 교육적 기능보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체득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상의 삶을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되살리는 것이 바로 소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설은 주체와 대상 세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 다음, 그 극복과 조화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 가는 과정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고 인식함에 있어 시보다 직접적이며, 희곡보다 구체적인 형상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결 손쉬운 접근을 허용한다.<sup>1)</sup>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있는 갈래도 소설이라고 본다. 문학의 갈래 중, 가장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소설 지도도 이에 걸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내어 삶에 대한 진지함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1)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49.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의 소설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들이 흥미있는 학습이라면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을 대비한 학습일 테고, 아니면 소설의 일부를 지문으로 한 문학 문제지 풀이 학습이 그 전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학습자들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쉽게 짜여 있지도 못하였다.

현행 6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는 학생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설과 참고 사항, 또는 보충자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고 교과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만을 지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18종이나 되는 많은 교과서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소설 지도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료는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도구이며,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학습 도구로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특히 학생에게는 학습 자료의 거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이전에 교재를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문학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제시되었다.

<성격>

고등학교 '문학'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작품 감상의 원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계발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고등학교 '문학' 과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해 가고, 올바른 민족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

<목표>

- 가. 문학 일반과 한국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나.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 다.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 문학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sup>2)</sup>

문학교육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목표 제시는 문학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형성하는 준거와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 교수·학습 방법의 길잡이도 되고 있다. <목표-나>는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의 실제적 내용 대부분과 관련되는 목표로서,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작품을 즐겨 읽음으로써 문학과 친화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초점화하고 있는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의 함양과 계발이다. 이 <목표-나>는 <목표-가>나 <목표-다>와의 관련 속에서 유기적인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교과서는 그 구성 체제면에서 일단 위에 제시된 성격·목표에 적합한 내용으로 짜여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문제 등은 매우 다양하여 교과서마다 특징이 있어 보인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네 작품을 선정하여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문제 등을 비교 분석하고 공통점을 추출하여 소설 지도의 중심 학습 요소로 삼아 통합적인 소설 지도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소설 교육 일반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소설 교육의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업적들은 많지 못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논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인기<sup>3)</sup>는 소설 제재들을 실제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떤 교육 목표 체계를 통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소설 교육에서 지식과 정서의 통합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지식 영역도 정서 교육을 위해서 중요하

2)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 과정*(1), p.68~69.

3) 박인기(1985). 「문학교육의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은모<sup>4)</sup>는 소설 교육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바람직한 소설 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김유옥<sup>5)</sup>은 문학의 기능과 교육 가능성이 소설 교육에서 어떻게 달성되어질 것인가를 살폈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 인문계 교과서에 실린 단편소설을 선정해서 각 작품 속의 '성격 창조 방법, 성격 유형, 성격과 주제와의 관련성' 등의 항목을 검토하였다.

박홍선<sup>6)</sup>은 소설 교육의 목적을 먼저 제시하고, 소설의 지도 목표는 소설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토대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정서의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설의 지도 내용은 가르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비평 및 문학 연구의 결과와 소설 교육의 지도 목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설의 교수·학습 과정은 소설의 지도 단계에 따라, 소설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태열<sup>7)</sup>은 학습자의 주체적 수용 능력을 위한 소설 지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자-반응 이론과 교육 공학의 매체 이론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그것을 실제 지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소설 지도 방법으로 줄거리 잡기, 빈자리 매우기, 도식화하기 등 세 가지 방법을 고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수난 2대」를 분석하여 실제 지도에 적용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도에 임해야 하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지도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학습자의 주체적 소설 수용 능력을 기르는 지도법임을 확인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정호경<sup>8)</sup>은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소설 단원은 소설 자체를, 또는 소설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곧 소설 단원의 내용, 소설 작품의 선정과 조직, 연습 문제의 제시 등이 논리적 전제나 학문적

4) 李殷模(1988). 小說教育 試論.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金有玉(1983). 「教科書 作品 分析을 통한 小說教育 研究」.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6) 朴弘善(1989). 小說教育의 目的과 指導方案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碩士學位論文.

7) 노태열(1992). 학습자 중심의 소설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鄭湖慶(1991). 小說 單元의 分析 및 評價. 釜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기초 없이 교과서 편찬자의 임의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학교 국어교과서 1학년 소설 단원의 내용·작품·연습은 부분적으로 소설 단원의 조건에 맞게 선정되고 조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소설 단원의 조건에 알맞게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외에 소설 교육에 관한 논문으로는 홍덕건<sup>9)</sup>, 김대기<sup>10)</sup>, 최시한<sup>11)</sup>, 이향숙<sup>12)</sup>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 의해 편찬된 검인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고, 교수·학습의 핵심 요소를 찾아 소설 지도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된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4종의 소설 작품에 제시된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문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소설 지도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실제 지도할 때 유의 사항이나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논의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검인정 교과서) 18종에 수록된 소설 작품들을 모두 조사하였다. 현행 18종 문학교과서에는 130여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부록참조). 이 중에서 고소설로 분류되는 17편과 외국소설 36편은 한국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선정, 분석하고자 하는 필자의 연구영역을 벗어남으로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자 한다. 나머지 80여 편의 현대소설 작품들은 전문 혹은 부분적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 중 10종 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이 소설들은 문학교과서 집필자들이 작품의 미적 감수성이나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나, 문학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중복 수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9) 홍덕건(1980), 플롯을 중심으로 한 소설 독해지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대기(1982), 小說指導研究, 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1) 최시한(1986), 『소설교육의 한 방법 - 구성(플롯)을 중심으로』, 『모국어교육 4』, 모국어교육학회.

12) 李香淑(1988), 『小說教育의 方法 研究 - 受容理論의 適用方案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다. 연구 대상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18종 교과서를 모두 조사한 결과, 10종 교과서 이상에 수록된 작품은 「무정」·「운수 좋은 날」·「메밀꽃 필 무렵」·「광장」 등 4편이었다. 이 네 편의 작품들은 시대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작품들이라 생각된다. 검인정 교과서 저자들이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선정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두 의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10종 이상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첫째 문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 새롭게 정리하고 해석해 나갈 것이다. 교과서 편자들마다 나름대로 독창적인 학습 목표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교과서 편자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반드시 학습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혼란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목표와 문제점들은 가급적 배제되고 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이견이 분분한 목표와 문제점들도 학습자들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사한 항목끼리는 통합하고, 차별화된 항목들은 독립시키면서 가장 보편적인 목표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둘째 각종 교과서에서 중요시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핵심 요소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반드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도과정에서 가장 유념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추출된 핵심 요소들을 토대로 새로운 지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려는 소설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소설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그에 따른 지도 계획과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 내용은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체계화·계열화하고, 이를 직접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넷째로 논의 대상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서사 구조, 인물과 배경, 문체와 기법 그리고 주제와 사상을 파악하고 정립해 나갈 것이다. 작중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이며, 어떤 인물의 성격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하여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편저자들이 의도한 학습목표나 문제 해결 이외에 필자 나름대로 각 작품에서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요소들은 교육과정상 기본적 목표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수업시 학습자들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또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설의 이해

---

와 감상에 있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긴한 단서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소설 지도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면, 성공적인 소설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원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소설 지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작품의 분석적 이해

### 1. 서사 구조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3요소로 하는 일정한 구성을 갖춘 '이야기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줄거리가 아니다. 어떠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 다음 사건이 필연적으로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다. 흔한 예이지만,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가 아니라, '왕이 죽었다. 이를 슬퍼한 나머지 왕비도 죽었다.'라는 식의 전개 과정이다. '이를 슬퍼한 나머지'가 바로 인과관계를 맺어 주어 소설로서의 진실성과 구조로서의 형식미를 낳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 대상 작품들에 대한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는 소설 지도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설 내용의 순차적 진행 순서를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 「무정」

소설 지도에서는 먼저 작품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그 구조가 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무정」처럼 여러 겹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는 구성을 복합구성이라 한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장편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법을 이해하는 요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교과서에는 서사 구조에 대해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었고, 또 지나치게 간결한 구조 분석이어서 학습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되어 있다. <표 - 1>의 ①권에는 「무정」의 구조를 '욕구 → 좌절 → 성취'의 갈등 구조로 도식화해 놓고 있다. 여기서 욕구는 미래 지향적 이상주의를, 좌절은 인물들이 겪는 현실적 갈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욕구와 좌절은 '형식 - 영채 - 선형'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를 통해 진행되다가 삼랑진에서 사회적 지향의

식을 보임으로써 현실적 갈등을 극복하고 이상주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 1〉의 ①권에서는 4단계로, ⑤권에는 '글의 짜임'란에서 5단계로 작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발단 : 영어 가정 교습으로 주인공 이형식과 선형의 만남.

전개 : 1) 영채의 등장으로 형식, 선형, 영채의 갈등.

2) 순결을 잃은 영채의 고민과 자살 결심.

3) 영채와 병욱의 만남.

4) 영채, 병욱, 형식, 선형이 열차에서 만남.

절정 : 다섯 사람이 형식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해 일할 결심을 하고 삼랑진 수재민을 돕기로 함.

결말 :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외국 유학을 마치고 온다. 〈4단계〉

발단 : 영어 가정 교습을 계기로 형식과 선형이 만남.

전개 : 영채의 등장과 형식의 갈등.

위기 : 영채의 절망과 자살 결심. 형식은 선형과 약혼.

절정 : 열차에서 만난 형식, 선형, 영채 등은 자선 음악회를 마련.

결말 : 민족 개화에 앞장 설 것을 맹세함 〈5단계〉

위의 두 교과서에 제시된 구조는 약간씩 서로 다르지만, 전자에서 전개부분을 세분화했을 뿐 거의 같은 구조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단한 구조로서는 학습자들이 작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서사 구조는 전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실제 소설 지도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작품은 대략 6개월여 동안 〈매일신보〉에 126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당시로 보아서도 대작으로 상당한 분량의 작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편의 경우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가 않다.

조남현<sup>13)</sup>은 「무정」을 ① 형식과 영채 ② 형식과 선형 ③ 영채와 병욱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구성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13) 조남현(1985), 한국 현대 문학의 磁界, 평민사, p.105.

- ① 1회 ~ 4회 : 형식과 선형 대면 서술
- ② 5회 ~ 66회 : 형식과 영채의 만남. 영채의 과거담. 형식의 갈등. 영채의 위기 및 구출. 평양행. 형식의 급전
- ③ 67회 ~ 75회 : 형식의 위기
- ④ 76회 ~ 85회 : 김 장로의 청혼과 형식의 승낙
- ⑤ 86회 ~ 94회 : 영채가 병욱의 집에서 지냄
- ⑥ 95회 ~ 99회 : 형식의 위기
- ⑦ 100회~103회 : 영채의 외국유학 결심
- ⑧ 104회 : 개별적 분절
- ⑨ 105회 : 작중 주요 인물들 차에서 상봉
- ⑩ 105회~125회 : 개인적·세속적인 욕망에서 민족주의적·이상주의적인 명분으로 승화
- ⑪ 126회 : 각 인물들의 10년 후의 일 약속

이 분석에 따르면 ①은 형식과 선형의 대면과정 서술로, 그것은 ②의 앞뒤에서 질서 있게 조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③의 관계는 ⑤까지 지속된다. 이 부분에서는 여권 신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병욱이라는 신여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진된다. 위와 같이 ①, ②, ③의 관계는 ⑧까지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진행되다가 ⑨에 이르러 기차안에서 우연히 동승객이 된다. 물론 마지막회는 각 인물들의 10년 후 일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대목이다.

한승옥<sup>14)</sup>은 「무정」을 「만남과 이별」의 구조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만남 : ① 영채가 소녀 때, 이형식이 고아가 되어 박진사댁에 위탁됨. 박진사 이형식을 영채의 배필로 정함.
- 이별(시련) : ② 박진사 전답 팔아 학교 세움. 재정난으로 문단을 위기에 처함. ③ 박진사 이 사건에 연루되어 두 아들과 함께 투옥됨. ④ 영채 집 파산되어 형식과 헤어짐. 영채 외가로 갔다가 구박이 심하여 탈출하여 아버지 만날 생각으로 평양으로 오던 중에 못된 사람을 만나 위기를 당하게 되나, 개의 보은으로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여 아버지 면회함. ⑤ 영채 기생 계월향이 됨. 형식을 재회할 희망으로 정절을 굳게 지킴.
- 만남 : ⑥ 형식이 서울에 있다는 소식 듣고 영채 형식의 하숙으로 찾아가 재회함.
- 이별 : ⑦ 영채 형

14) 韓承玉(1984), 李光洙 研究, 鮮一文化社, p.178~180.



식을 만나고 온 후, 청량사에서 배학감, 김현수에게 정조 훼손됨. ◦ 만남 : ⑧ 형식 영채를 평양으로 찾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와 선형과 약혼함. 영채 병욱에게 설득되어 그의 집에 있다가 성악을 공부하러 유학차 병욱과 함께 기차에 오름. 영채와 형식 재상봉. 삼랑진역에서 홍수를 만나. 구제사업을 벌임. 모두 유학하여 나라를 구할 결의함.

위의 분석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 내용으로 재구성한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작품 내용의 순차적 진행 순서에 따르지 않은 분석이 되었다.

「무정」이 장편소설이라는 점과 이형식, 김선형, 박영채 등 인물들의 삼각관계 갈등을 감안하여 사건전개 단위의 순차적 진행 순서로 분석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무정」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① 형식이 김장로의 딸 선형의 영어 가정 교사로 초빙되어 미국유학을 앞둔 선형을 가르침.
- ② 하숙집에 돌아온 형식은 그를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던 박진사의 딸인 영채를 만남.
- ③ 영채는 아버지의 출옥을 위해 기생이 됨.
- ④ 형식은 영채의 파란 곡절을 듣고 난후, 영채를 구제할 것을 다짐함.
- ⑤ 영채는 배학감에게 유린당한 수치심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평양을 떠남.
- ⑥ 형식은 4년 간 몸담았던 학교를 그만둠.
- ⑦ 형식은 선형과 약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선형과 함께 부산행 열차에 오름.
- ⑧ 영채가 병욱의 집에서 지내다 병욱과 함께 동경 유학을 결심함.
- ⑨ 형식, 선형, 영채 등 주요 작중인물들 열차에서 서로 만남.
- ⑩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즉석 자선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각성과 민족적 일체감에 눈뜨면서 갈등 해소.
- ⑪ 작중인물들의 10년 후의 일을 약속함.

위와 같이 분석한 것은 주요 작중인물들의 갈등과 단일 사건 단위를 순차적 진행과정을 위주로 하였다. 단일 사건 단위로 분석하면 줄거리 설명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각 항에서의 사건을 전개해 보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며,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기 위한 구조 분석이 되는 것이다.

## 2)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은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김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 일과를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식민지 시대의 비극적인 삶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은 행운의 상승과 불행의 하강을 동반한다는 대립적 구조가 주축을 이루어서 김침지의 운수 좋은 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설에 있다.<sup>15)</sup> 행운의 객관적 상관물인 돈벌이가 늘어감에 따라 아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어 간다. 마침내 행운의 절정 순간에 아내가 죽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반전된다. 이를 인물 중심으로 보면, 김침지를 가운데 두고 '돈'과 '아내'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행운과 불안이 상호 교차되어 전개되다가 마침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불안 심리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다. 일 나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던 아내의 말이나, 불안한 가운데 떠올린 아내의 병든 모습과 개똥이의 울음소리들은 결말을 위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술집에서 보인 김침지의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이러한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망의 요약과정은 특별히 집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집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추적 상황을 심리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의미파악에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sup>16)</sup>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면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진행적 구성을 택했으며, 작중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하여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작품을 분석하면서 밝혀보고자 한다.

①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15) 현길언(1990),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 p.198.

16) 안성수(1989),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論,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59.

- 2 동소문(東小門)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 3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겁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 4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 앞에 어른어른하였다.
- 5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 6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 “이 원수엿 돈! 이 육시를 할 돈!”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 7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도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 8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겨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 “이년아, 죽었던 말이나. 왜 말이 없어?”
- 9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대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①, ②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행운의 상승이 보인다. 현대 소설에서 배경이란 작품의 존재를 극명하게 밝혀주는 지렛대이며 사건과 인물을 키워내는 토양인 것이다.<sup>17)</sup> 일반적으로 소설의 서두 배경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결말에서 작중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듯이 이 작품에서도 김첨지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①에서 ‘눈과 비의 대립’을 생각해 보자. 눈이 내릴 듯한 날씨이다. 그런데 눈이 내릴 듯하다가 비가 내리는 것이다. 눈이 내려야함에도 비가 내린다는 것은 정상인 듯하다가 비정상 상태로 전환을 의미한다. 즉 행운이 불운으로 역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에서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라고 표현했듯이 수입이 평소보다 예상외로 많았음

17) 김상옥(1996), 앞의 책.

을 알 수 있다. 수입이 많아져 앓은 아내에게 설렁탕을 한 그릇 사다주고 약도 한 첩 지어다 줄 수 있는 행운의 날인 것이다.

작품 「운수 좋은 날」의 발단 부분에서 '눈과 비의 대립'과 눈이 아니 내리고 '비오는 날의 행운'은 아무래도 상황적 불합리의 설정이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순조롭지 못하고 비운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수입이 느는 것이 충격적인 행운임과 같이, 김첨지에게 충격적인 사건, 즉 아내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에 와서 행운의 상승을 일단 머뭇거리게 되면서 하강을 위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이 계기는 김첨지 자신의 강박관념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아니다. 그 강박관념은 ④에서 아내의 모습이 김첨지의 눈 앞에 어른거리면서 강화된다. 또, 노동의 대가가 파격적인 것이 오히려 더욱 불안한 마음이 강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과 같은 행운이 없었던들 아내에 대한 불안감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⑤, ⑥, ⑦에서는 김첨지 자신의 불안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⑤에서 인력거의 무게가 무거울 때 몸이 가볍다는 것은 몸의 가벼움보다는 마음의 무거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⑥에서 돈에 대해 환멸을 느끼듯이 행동하는 것은 돈에 대한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⑦에서의 웃음과 울음은 모두 아내에 대한 불안 초조에서 오는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라 할 것이다. 곧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불운으로의 하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⑧에서 드디어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다. 집에 다다를수록 불안해 하던 김첨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달래려고 갖은 허장성세를 다 부러본다. 그리고 제발 죽지 말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결국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은 눈 앞의 현실이었다.

⑨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자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행동이다. 돈이 없어 약 한 첩 제대로 먹여보지 못했고,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자책감을 벗지 못하는 자탄의 행위이기도 하다. 이상스럽게도 운수가 좋더니만 마침내 아내가 죽는 비참하고 비통한 일을 당했다는 독백에서는 반어적 상황 설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운수 좋은 날'은 '가장 운수 나쁜 날'이라는 반어적인 제목이 성립된다.

이와 같은 구조 분석을 학습자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서사 구조의 각 분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소설지도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sup>18)</sup>은 두 개의 플롯이 교차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허생원의 한 평생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고, 또 하나는 등장 인물들이 봉평 장에서 대화 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 두 개의 플롯이 과거 회상과 현실 묘사를 통해 적절히 교차됨으로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유량의 삶을 보여 주고자 하였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인간의 자연스럽고 신비로운 혈육에 대한 정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메밀꽃 필 무렵」은 그 의미 단위에 따라 8개의 단락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1. 엷뚱배기요 왼손잡이인 허생원은 동업의 조선탈과 함께 여름장의 전을 거둬들인다.
2. 쓸쓸하고 뒤뜰린 반생이었던 허생원은 충죽집을 사이에 두고 동이와 다룬다.
3. 장판의 각다귀들은 허생원의 분신과도 같은 당나귀를 귀찮게 굴면서, 허생원을 놀린다.
4. 젊은 시절에는 돈푼이나 모았으나 투전으로 날리고, 나귀를 끌며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녔다.
5. 허생원은 여름 달밤에 물레방앗간에서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이별하고 만다.
6. 허생원은 동이와 화해하며, 서로 대화를 나눈다.
7.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은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에서 허생원은 따뜻함을 느낀다.
8. 동이가 왼손잡이임에 놀란 허생원은 어쩌면 그가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설레는 기대감을 갖고 함께 제천으로 떠나기로 한다.

이 작품의 구조는 허생원의 한 평생의 이야기인 과거 고백담(④, ⑤)과 봉평장에서 대화 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특히 ⑤는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라는 대목은 대화체에 의한 허생원의 고백담으로 일종의 삼화로 되어 있다.

18) 김태준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주)민문고, 「메밀꽃 필 무렵」의 내용은 이 책에 의할 것이며, 쪽만 밝힘.

이 이야기는 이효석과 같은 고향인 강원도 봉평의 '황일부'라는 실존 인물의 실화에 근거를 두어 창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화이건 아니건 이 이야기는 작품으로서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작가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실현된다. 문학을 사회 혹은 현실과 대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문학은 구체적인 형상화를 필요로 하는 예술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황일부의 이야기도 아니며, 작가가 허구적 상상력을 개입하여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로 환기시킨 것이다. 작가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장터보다는 산길을 선택했으며, 낮보다는 밤을 선택하였다. 달밤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장돌뱅이가 그들의 운명론적 삶을 수용하며, 그들의 갈등과 대립이 격앙된 장터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본능적 애육의 신비를 산문적인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달밤에 완전히 노출된 메밀밭을 중심으로 한 자연은 허생원으로 하여금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단 한 번의 연애에 대한 추억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손에 잡힐 듯하고, 흐뭇하며 숨이 막힐 지경이다. 낮에 있었던 장돌뱅이의 곤혹스러움을 잊을 수 있는 길이다. 허생원은 분위기에 압도된다.

이효석의 문장이 주는 효과는 물리적인 사건이나 행동의 표출보다는 정감적, 감정적인 경향이 농후하여 눈으로 읽기보다는 머리로 생각해 가며 읽지 않을 수 없다.<sup>19)</sup> 또한, 이런 아름다운 자연 장면에서는 착한 인간미가 되살아난다고 본다. 나귀와 인간의 성본능의 순수성은 아름다운 자연의 소산이다. 나귀는 피붙이인 부자가 기구한 운명론적 해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귀의 새끼인 강릉집 피마 새끼와 연결되어 이들 사이에 친자임을 확인케 하는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 4) 「광장」

교과서마다 작품 전문이 실려 있지 못하므로 전체 줄거리를 제시하고 작품 내용을 시간의 순차적 진행 과정에 따라 구조 분석해 보기로 한다.

##### 〈전체줄거리〉

바다는 숨쉬고 있었다.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뒤채이면서, 중립국으로 가

19) 정한숙(1994), 현대소설작법, 장락, p.300.

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 배인 타고르 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단장한 3천 톤의 몸을 떨면서, 물처럼 뻘뻘 들어찬 동지나해의 공기를 헤치며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석방포로 이명준은, 옆 얼굴이 놀랍도록 말쑥한 선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눈길을 옮겨 왼쪽 창으로 멀리 바다를 내다보았다. 이 선장실 말고는 마스트 꼭대기에나 오르면 어떨까. 그밖에는 이렇게 온전한 전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성싶지 않았다. 바다는 그 쪽에서, 눈부신 빛의 반원이었다.

이명준은 철저한 공산주의자 이형도의 아들이었다. 해방 후 만주에서 귀국한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기숙하며 대학 철학과에 다녔다. 그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무관심하며, 넉넉한 집안의 윤애와 사귀었다. 그러나 남한의 치안 당국자들은 이명준과 그의 아버지의 일을 연관시켜 명준을 고문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명준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어느 뱃사람의 제의를 받아 이상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북으로 향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본 것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이 아니라, 위선과 독선, 치사한 아첨과 비굴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그는 국립 극장의 무용수인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 후 6·25가 터지고 명준은 서울로 내려와, 군관 신분으로 우익 사상범들을 다루었다. 거기에서 뜻밖에 태식과 그의 아내가 되어있는 윤애를 만나는데, 명준은 윤애를 농락하고 태식을 처형했다.

그리고 자원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갔다. 낙동강 전선에서 그는 간호원이 되어 온 은혜를 만났다. 둘은 아비규환을 이룬 전선의 어느 동굴에서 다시 사랑을 맹세하지만, 다음 약속한 날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엔군의 포격과 폭격에 그녀는 죽었고, 명준은 포로가 되었다. 결국 명준은 북쪽과 똑같이 남쪽에도, 그가 마음 놓고 삶을 꾸릴 광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휴전이 성립되고, 포로 수용소를 나오자 중립국으로 갈 것을 희망했다. 그들을 태운 송환선은 인도로 향해 가는 항로에서 남지나해를 지나간다. 뱃길에서 그는 평소 익힌 영어 덕으로 통역일을 본다. 그리고 그간 친해진 선장과 스스럼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푸른 파도를 가르며 가는 배의 갑판위에서 심한 고독을 느꼈다. 그리고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중 명준이 탄 배에는 한 사람의 실종 사실이 선장에게 보고된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냐? 없다는 게?”

“미스터 리입니다.”

이튿날, 타고르 호는 흰 페인트를 말쑥하게 단장한 3천 톤의 선체를 진동시키면서, 한사람의 선객을 잃어버린 채, 물처럼 뻘뻘 들어찬 남지나해의 대기를 헤치며 미끄러져 가고 있었

다. 흰 바닷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스트에도, 그 주변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 버린 모양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이명준이 배를 타고 제3국인 인도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의 기본선으로 하여 그 사이사이에 과거의 일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작가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속에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배치하여 분단 상황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점검하면서, 남북 분단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성을 드러내는 데 치우쳤던 1950년대 전후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단소설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을 서술의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 놓으면 다음과 같다.

1. 이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다른 포로 석방자들과 함께 인도 선박 타고르호를 타고 동지나해를 지나고있다.
2.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이명준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욕에 불타 있다.
3. 주인집 딸 변영미의 소개로 이명준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강윤애를 만난다.
4. 이명준은 미라를 보기 위하여 정선생을 찾아가 남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5. 이명준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에 살고 있는 강윤애의 집을 방문한다.
6. 이명준은 부친 문제로 두 번이나 S경찰서에 불려가 담당 형사에게 심한 모욕과 함께 폭행당한다.
7. 이명준은 윤애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와 육체 관계를 갖는다.
8. 이명준은 인천 부둣가 목로 술집에서 자주 술을 마신다.
9. 선장이 타고르호 갑판에 누워 있는 이명준에게 찾아와 몇 마디 잡담을 나눈다.
10. 이명준은 인천 바닷가 분지에서 강윤애와 데이트를 한다.
11. 이명준은 다시 선실로 돌아와 같은 선실을 쓰는 박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12. 이명준은 홍콩에 상륙하는 문제로 김이라는 동료 포로와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의식을 잃는다.
13. 이명준은 국군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힌다.
14. 다른 석방 포로들은 식당에 갇히고, 의식을 회복한 이명준은 뒷갑판으로 간다.
15. 이명준은 조선인 꼴호즈를 취재하기 위하여 남만주에 머문다.



16. 이명준은 선술집 주인의 주선으로 인천에서 밀수선을 타고 월북한다.
17. 이명준은 평양 노동신문사 편집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아버지에게 북한 사회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다.
18. 이명준은 야외극장을 짓는 일에 자원봉사 나갔다가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위문 나온 발레리나 은혜를 만난다.
19. 이명준은 조선인 끌호즈 기사 사건으로 편집부원들 앞에서 자아비판을 받는다.
20. 이명준은 하숙집에서 은혜를 만나고, 은혜는 그에게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예술제에 참가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21. 원산 노동자 휴양소에서 며칠 휴식을 취하던 중 이명준은 그곳에서 우연히 은혜를 만난다.
22. 이명준과의 약속을 깨고 은혜는 몰래 모스크바로 떠난다.
23.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이명준은 정치보위부원으로 서울에 돌아와 변태식을 고문한다.
24. 태식의 아내가 된 강운애를 능욕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둔다.
25. 이명준은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고, 거기서 간호병으로 지원한 은혜를 다시 만난다.
26. 이명준과 은혜는 낙동강 근처 동굴에서 자주 만나 마지막 사랑을 불태운다.
27. 그의 아이를 임신한 은혜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다.
28. 이명준은 마카오 상륙을 앞선해 달라는 석방 포로들의 제안을 묵살한다.
29. 이명준은 정전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곧 이어 송환 절차를 밟는다.
30. 북한에도 남한에도 송환되기를 거부한 채 중립국을 선택한다.
31. 이명준은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무렵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다.
32. 타고르호는 남지나 해를 따라 항해를 계속한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아주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교차 반복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최인훈은 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현재 사건을 다루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과거 사건을 다룬다. 중간에 가서 잠시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이 교차 반복적으로 이러나는 듯하지만 다시 과거 사건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32개의 사건은 과거회상과 현재로 짜여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회상의 사건은 24개이며, 현재 사건은 8개로 되어 있다. 과거회상의 사건은 크게 남한에서의 생활과 북한에서의 생활로 구분된다. 남한 생활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만과 운애와의 사랑이, 북한에서의 생활은 북한 정치에 대한 환멸과 은혜와의 사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의 사건 8개는 모두 이

명준이 제3국을 선택하여 가는 타고르호 선상이다. 결국 이 소설은 주인공 이명준이 타고르호 선상에서 과거를 회상하다가 바다에 투신자살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명준의 삶을 통하여 남북한의 생활과 남북한에서의 갈등, 윤애 그리고 은혜와의 사랑의 차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그의 죽음의 의미 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광장」의 의미를 해결하는 것이다.

## 2. 인물과 배경

### 1) 인물

소설 속에는 작가가 설계한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정된다. 그 인물이 작품속에서의 활동상을 토대로 인간에 대한 탐구와 삶의 표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따라서 작가는 인물의 성격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작품속의 인물은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하기 때문에 캐릭터(character)라고 부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근대 소설의 특징은 인간의 탐구와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에 있다. 독자들에게 인상 깊게 읽힌 작품은 대부분 인간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하며 인간성의 탐구 또는 성격의 창조에 성공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의 주인공은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의 성격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작품들 속의 작중 인물들이 어떤 성격 유형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실제 지도상의 유의점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무정」

「무정」에 나오는 인물로는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 신우선, 김병욱 등이 주요 인물들이다. 부수적인 인물로는 하숙집 노파, 배학감, 교주 아들 김현수, 윤순애(고아로 선형의 집에서 자람), 평양 기생 계월화(영채가 형남이라 부름), 어린 기생 계향, 김병욱의 오빠 김병국,

영채의 주인공 집 노파, 경성학교 4학년생 이희경 등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형식은 고아 출신이며 일본 유학을 한 경성학교 영어 교사로 당시 한국 근대 지식인의 전형적 인물이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와중에 끼어 정신적 지주없이 방황하고 회오하며 다만 외세지향, 미래지향에의 이상과 집착으로 위안을 삼는 과도기적 인물이요,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sup>20)</sup> 곧 개인과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 근대 지식인의 전형적 인물이며, 감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하겠다.

박영채는 전통적 유교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매몰차고 정조관념이 강한 우리 전통의 수절하는 여인, 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전통적인 고유의 한국 여인상'<sup>21)</sup>이라 할 수 있다. 구봉건 세대의 인습에 희생당했던 비극의 여성에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 및 동포애적 연대의식에 대한 김병욱의 설득에 의해 근대적 윤리관을 갖춘 여성으로 변하는 입체적, 유동적 인물이다.

김선형은 부호 김장로의 딸이요,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영채와는 대조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형식과 약혼함으로써 박영채의 비극성을 고조시키지만 피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동적이고 온순한 인물이다.

김병욱은 영채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신여성으로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생활, 합리적인 사고 방식, 반봉건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인물이다.

인물의 성격은 누구와의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인물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 (2)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의 인물로는 주인공 김첨지와 보조 인물로 아내와 친구 치삼이 등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인물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요 인물의 사고와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첨지의 하루 일과를 묘사, 서술, 대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격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김첨지의 성격과 심리변화가 초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곳곳에서 김첨지는 병든 아내를 걱정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순박하고 착한 인간의 한 전형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작품 내용 중 '거저나 얻은 듯이 고

20) 윤병로(1993), 한국 근·현대 작가·작품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225.

21) 윤홍로(1978), 「한국 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일지사, p.210.

마왔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뻐다.’에서 처럼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운임을 받은 것인데도, 행운이 거저 굴러 와 돈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심리로 본다면 김침지가 매우 순박하고 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대까지 충실하였다.’에서처럼 우직하면서 똑심이 있는 성격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 없어.’, ‘아따 젠장맛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찌나.’ 등의 욕설 표현은 하층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김침지의 하층민으로서 성격, 순박하고 착한 성격, 우직한 성격 등이 어떠한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를 학습자들이 지적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 (3) 「메밀꽃 필 무렵」

이 작품의 인물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결여된 것’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고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다.<sup>22)</sup>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를 찾는 인물이고, 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착된 삶을 찾는 인물이다. 또 동이 어머니는 동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슬집에 팔려가기가 상수(上數)라고, 처녀의 뒷공론(公論)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끝은 꿩귀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 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p.171~172)

평생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떠돌아 다니는 허생원의 유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나 그리움이라는 것은 만나고 싶은 욕망이다. 반평생을 봉평에 마음을 두고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는 성서방네 처녀를 꼭 찾겠다는 다짐이 있을 것이다.

22) 이상신(1990). 小說의 文體와 記號論. 느티나무, p.206.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 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p.174~175)

동이와 허생원의 대화속에서 동이 어머니도 동이 아버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물론 동이는 아버지 얼굴도, 아버지 고향도 모르고 살아왔기에(“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향도 모르고 지내 와요.” p.186). 동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찾아야 함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전통 토속 사회의 소박한 떠돌이 인생들이다. 허생원은 20년 동안이나 봉평 장을 ~~배~~ 놓은 적이 드물 정도로, 꼭 한 번 정을 준 처녀 생각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을까. 또 동이는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 외로움과 슬픔은 어떠한가를 하는 그들의 내적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외롭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야겠다는 다부진 결심을 하는 착한 젊은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지닌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지를 학습자들에게 찾아 보도록 제시하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 (4) 「광장」

이 작품 속의 인물로는 주인공인 이명준과 북에 있는 혁명가인 명준의 아버지, 남쪽의 윤애와 북쪽의 은혜라는 두 여인들이다.

소설 속의 인물은 그 인물만이 지니는 개성이 있는 것이다.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물이 되어 작품 속에서 진정한 인물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인물은 개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적 인물 소개로는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주인공 이명준은 어떤 성격 특성 때문에 자살을 결행했을 것이고, 자살하게 된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학습자들

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이명준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책에서 참다운 삶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책을 통해 결론을 얻지 못하고, 그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에게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한다. 거기서도 실패하고 만다. '그에 있어서 남한의 정치는 탐욕과 배신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 경제는 사기의 안개 속에 험박의 꽃불이 터지고 허영의 애드벌룬이 떠도는 곳이고, 문화는 허소리의 꽃이 만발한 곳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廣場'이 없다.'<sup>23)</sup> 그에겐 확실한 '광장'도 '밀실'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3국을 택했고, 타고르 호 선상에서 자살을 했다.

이명준에 대한 논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명준이 일종의 문제적인 개인으로 이념과 이념, 이념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대의 지식인의 전형이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즉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늘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나 결국은 주어진 두 이데올로기 모두에 실망을 느끼고 제3국의 도피(선택)를 꾀하나 그 3국에 이르는 도중에 자살을 하고마는,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지나치게 명쾌하지 못한 그러나 진실일지도 모르는 가치추구에의 영원한 실패를 인지하고 삶을 마감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긍정적 시각이 드리워져 있다.<sup>24)</sup>

이 소설은 이명준의 중도적 성격화를 위한 장치이다. 남한에서의 부정적 논리가 남한을 거부하고 북한을 선호하는 이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월북의 동기 또한 한 이념에의 경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명준이 의심할 여지 없는 '중도적 인물'이다.<sup>25)</sup>

이명준은 철학과 학생으로서,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모두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살을 하는, 삶의 가치를 죽음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제3국으로 가는 선상에서 자의식에 빠져 자살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한 젊은 지식인으로서 진정한 '광장'도 '밀실'도 없다는 판단과, 조국인 남과 북을 버린 다음의 그에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죽음이었다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3) 張良守(1994). 韓國의 問題小說. 集文堂. p.203.

24) 丘仁煥 外(1989). 韓國現代長篇小說研究. 三知院. pp.387~388.

25) 김동환(1996).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 태학사. p.225.

이 작품의 주인공의 성격 내지 삶의 자세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글을 써보도록 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학습형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2) 배경

소설의 목적이 인간성의 탐구와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에 있다고 볼 때, 인간의 성격에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배경이다. 배경은 작품의 무대로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 역사적 환경이다.

배경은 일정한 분위기와 현장감을 조성하여 인물과 사건에 신빙성을 주고자 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테면 특정한 배경(예를 들어 '감자'의 빈민촌)에서는 특정한 사건(도둑질, 살인, 윤락 행위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써의 배경이 설정된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 상태나 사건 전개를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능은 주로 자연적 배경일 때이다. 찌푸린 날씨로 인물의 어두운 심리를 암시(예로 '운수 좋은 날')한다든가, 새벽 혹은 비가 개고해가 뜨는 것으로써 갈등의 해소를 암시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운수 좋은 날」이 그 좋은 예이다.

### (1) 「무정」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배경은 한국의 근대사로 접어들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치는 근 반세기이다. 이 반세기는 한국사에 있어서는 근대사로 편입되는 매우 특이한 심각성을 지닌 시대다. 정치·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동요는 물론, 정신사적으로는 기존 가치 체계와 불가피하게 맞이한 우월적인 서구 문명과의 충돌 및 갈등 상태 속에서 막연한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던 시기다.

이 경우 불안이란 외세의 폭력적인 힘의 침입에 의해서 자주성이 위협받은 데서 파생된 것이다. 희망이란 문명 개화나 근대화의 가능성이 비로소 기약됨을 뚜렷하게 감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정신 주조가 당대의 정신 풍토였던 것이다. 「무정」은 후자에 훨씬 가깝게 그 실마리가 닿고 있다.

이 작품이 근대사로 편입되는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설의 내용면, 주제면, 문학사적 의의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배경의 역할이 소설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소설 지도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소설론의 관점에서 근대적 소설론의 기점을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을 전후한 1980년대 후반부터 본다면,<sup>26)</sup> 시기적으로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과 일제의 강압으로 인한 낙약성 등이 얽혀 민족주의와 계몽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시간적 배경 또는 시대적 배경이 소설 속에서 해당 시대의 사상을 낱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도해야 될 것이다.

## (2)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에서 비가 내리는 첫부분의 배경 묘사는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나리는 날이었다.'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결말은 불행으로 끝맺을 것이 서두'에서 암시되고 있다. 비오는 날이기에 인력거꾼인 김첨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행운에 반하여 아내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맞게 되는 반어적인 수법으로 전개되었다. '눈이 올 듯하더니'라는 기대감과 '비가 추적추적 나리는' 것은 그와 반대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이며,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되어 있다. 이 시기는 민족의 수난기로서 삶 자체가 순탄치 못했고 가난의 고통을 겪던 때이므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획득하기에 적절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은 도시 주변 하층민의 삶을 그리기에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한층 실감나게 한다. 비오는 날로 설정된 배경은 전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며, 행운과 불행이 교차하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한 지도 요소로는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위에 제시한 배경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운수 좋은 날」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화 부분과 배경 묘사 부분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 있다.

26) 문성숙(1991), 韓國 近代小說論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p.11.



(3) 「메밀꽃 필 무렵」

이 작품의 중요한 배경은 오후의 파장터와 대화장으로 가는 한밤중 달밤이다. 시간적으로는 여름날 달밤이며, 공간적으로 산길이다. 가장 두드러진 배경묘사 부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여놓은 전취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북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침침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때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얽둑배기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거들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스물하게 사본 일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 가서 한몫 벌어야겠네.”

“달이 뜨렀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번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마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 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차다. 명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천들을 걷고 있었다. 약삭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뺨장수도 옛장수도 생각장수도 풀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p.163~164)

②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 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p.169~170)

①에서, 여름 장터 파장의 쓸쓸한 분위기를 통해서 허생원의 외롭게 살아온 반생이 드러나고 있다. 왁자지껄 떠들던 장꾼들과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리고 चु츨스츨하게 파리떼나 날아 들고 장난꾼 각다귀들이나 돌아다니는 장바닥에 벌어도 신통치 않은 허생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모습은 그와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나귀를 통해서 고독하고 괴로운 여정이 잘 드러난다.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며 살아온 주인과 나귀였다. 그러기에 작자는 '가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알아보는 나귀와 허생원은 한몸이다. 파장터를 배경으로 하여 이 나귀와 허생원의 외롭고 고달픈 모습을 잘 어울린다. 그런데, 허생원네 일행은 내일 장이 서는 대화를 향해 떠나야 한다.

②의 배경은, 대화로 떠나는 밤길로 옮겨진다. 신통하게 벌어도 안 되었고, 별로 쉬어도 지도 못하고서, 8십리의 밤길을 걸어 대화로 가는 것이다. 그 길은 피곤하고 외로운 길이다. 그런데 허생원에게 밤길은 그렇지만도 않다. 밤길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달빛이다. 보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밤중을 지난 달빛은 짐승같은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렸다. 그 다음에는 산허리 메밀밭에서 소금을 뿌린 듯이 핀 메밀꽃의 숨막힐 듯한 정경이고, 나귀 방울소리다. 그러한 분위기는 아프고 고달픈 허생원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잊고 아름다운 추억에 잠기게 한다. 허생원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여인과의 달콤한 추억을 다시 되풀이한다. 그리고 동이의 등에 얹혀 그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가 왼손잡이인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된다. 그것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의 꿈을 좀더 다가오게 하면서, 외롭고 고달픈 생활을 잠시 잊고 아름다운 꿈에 젖게 만든다.

이 작품의 의미는, 파장터에서 메밀꽃이 핀 달밤으로 이동되는 두 배경이 풍겨주는 맛에서 확실해진다. 여름날 파장터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허생원의 반생이 한 여인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매개로 메밀꽃이 시원하게 피어있는 달밤의 분위기로 승화되는데 있다.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분위기는 인간의 본연적인 애정을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산길은 삶의 역정을 암시하는 동시에 허생원과 동이의 혈육 관계를 확인시키고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울'은 허생원과 동이가 육친으로서의 정을 느끼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강조하여 지도할 사항이 배경과 배경의 역할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배경의 아름다운 정경을 회화화하도록 하고, 파장터와 달밤의 산길 배경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광장」

이 작품은 '타고르 호 선상에서의 이틀'이라는 현실적 배경과 '남한의 서울과 북한의 평양'을 주요한 회상적 배경으로 되었다. 이 작품에서도 배경이 주인공 이명준의 바라는 '광장'의 의미와 연관을 맺으면서 사건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공간적 배경 이동이 주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이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실제 시간과 공간은 이틀 동안의 타고르 호 배 위이고, 회상 배경의 시간과 공간은 광복으로부터 6·25 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시기로, 주로 서울과 평양이다. 서울과 평양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이데올로기가 갖는 허상을 밝히는 장치이다. 남한의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자유,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인간성의 말살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사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3. 문체와 기법

문체는 영어로 스타일(style)이라고 한다. 한 편의 소설을 쓸 때, 작가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 속에 놓인다. 언어와 문학양식의 재량권 안에서 작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표현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선택에 의하여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게 된다. 즉 어떤 작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지속적 리듬·반복적 문장구조·특별한 어법 등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작가의 인품·지식·흥미·이상 등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다. 이러한 개성적 측면이 문체와 기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 1) 「무 정」

고소설의 문체가 독특한 표현상의 특징을 따로 보이지 않는 유형적인 문체라면, 개화기의 신소설은 고소설에서 흔히 쓰던 '~더라, ~러라'식의 문장 종결법이 많이 줄어든 대신 '~한다'체가 많아진다.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법들을 탈피하여 구체적인 묘사로 발전해 나간다. 이와같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언문일치를 이루게 되고, 현대 소설에 와서는 개성적인

문체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정」이 근대, 혹은 넓은 의미에서 현대 장편소설의 효시라고는 하지만, 신소설의 문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외다'와 같은 어투가 가끔 보여 문어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이고 있다.

〈표 - 1〉 ①권에는 '이 작품은 완전한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현대적인 문체 확립에 기여하였다.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등장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현재 시제법의 사용과 평이하고 유연한 표현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하였다. ④권에서는 '신소설과 「무정」의 문체적 특징 비교'에서 '신소설은 불완전한 언문일치체를 보이고 상투적 표현이 자주 쓰이는 데 반해 「무정」은 묘사적 구어체를 확립하였고, 상투적인 표현을 배제했으며 현재어를 구사하여 현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라 하였다. ⑧권에는 '이 소설의 기법'이라 하여 '이 소설은 작가의 직접적 설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객관적·간접적 묘사보다 작가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을 설명하여, 생생한 사실감이 결여되어 작위적으로 주제를 향하여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이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목적이 계몽적이라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⑩권의 '「무정」의 문체'에서는 '「무정」의 배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한국 사회이다. 이 시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사로 편입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이광수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선 청년들의 이상과 고뇌를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및 인도주의에 입각한 「무정」을 발표하였다.'라 하였다.

문학 교과서의 내용만을 참고로 하여 지도한다면, 이 작품은 완전한 현대적인 문체와 기법에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소설에서 좀 더 발전한 문체일 뿐 현대적인 문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교과서 ①권에서는 문체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광수가 「무정」을 발표하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을 문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특히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도록 편제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무정」의 문체와 기법은 신소설이 보였던 문어체의 잔재를 청산하려 하였고, 한글 전용의 구어체를 실현하여 현대소설 문체에 한층 접근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구사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황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신소설에 비하여 표현이

평이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기술 방법에 있어 주로 '말하기(telling)'에 의존하고 있다. 즉, 작자가 서술 내용(사건이나 인물)에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고 설명하는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 또는 작자와 서술 내용 사이의 거리는 단축시키지만, 서술 내용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작중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전부 관장하고, 행동에 관한 설명, 심리적 변화와 그 의미까지 해석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때는 중간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결말인 126회 부분은 작자가 서술자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직접 계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작가 개입이 뚜렷한 예이다.

고소설, 신소설과 「무정」과의 문체상의 차이점을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2)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은 묘사, 서술, 대화 등의 교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작품 중간에서 김침지의 행운 묘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기본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더구나 김침지의 속된 욕설 표현은 하층민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현진건의 문학적 특징은 사실주의 수법의 확립에 있다. 즉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반전법, '나'라는 자기 고백적 시점을 사용하여 현대 한국 단편 소설의 기교를 확립한 점에 그 공로가 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근대적 단편 소설의 모형을 확립한 작가의 한 사람인 현진건의 작품의 특성은 단적으로 아이러니(irony)의 틀 속에 1920년대 한국 사회의 한 전형을 창조하고 있다.

현진건의 소설에 있어서 구조적 특성은 반어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현실이나 사회를 단순하게 바라보거나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다. 반어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관찰하며 당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강한 현실 인식을 지니려 했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운수 좋은 날」이다.

죽음을 예감하고 남편이 돈벌러 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아내를 남겨 둔 채 나가는 김 침

지, 행운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아내의 죽음이란 가장 참담한 순간을 맞게 된다는 반어적인 상황에서 작가 현진건의 현실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후의 모순되는 상황을 설정한 반어의 기법은 현진건 소설의 미학이면서 동시에 현실에 대한 작가의 대응 태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반어적 기법과 사실 묘사가 두드러진 곳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3) 「메밀꽃 필 무렵」

이 작품의 배경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문체와 기법상의 문제이다. 파장(罷場)하는 시골 장관 묘사라든가, 주인 허생원을 닮은 나귀 묘사, 메밀꽃이 하얗게 핀 달밤의 산길 묘사 같은 것은 탁월한 사실적 문체의 예로 들 수 있다. 표현 기법 상으로도 대화 형식으로 플롯을 진행시킨다든지, 암시와 추리를 통해(부자 관계) 주제를 간접적으로 부각시킨다든가, 반복되는 지명(봉평·제천)으로 의식과 감정을 고조시키고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트림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 닷새 만큼 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처럼, 주어 없는 문장으로 대상 속에 사람(자신)을, 사람속에 대상을 용화시켜 하나가 되게 한다. 한 주어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경우를 적극 포착하여 문장에서 받는 인상을 부드럽게 한다. 따라서 마침표에 관계없이 같은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같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

이효석의 소설은 대개 참신한 은유나 직유로 가득 차 있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가 그 예이다.

이 작품의 문체는 배경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인지 대부분 교과서가 문체와 기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의 문체는 배경을 묘사하는데 사실성을 강조하는 요체가 될 것이다. 표현 기법으로는 과거 회상의 사건은 주로 요약적 서술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은 주로 장면 제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가 시간의 위상을 두지 않고 긴밀하게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의 세계를

더듬는 허생원의 회상 장면과 현재의 장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만하다.

#### 4) 「광장」

〈표 - 4〉 ㉠권과 ㉡권에 기법상의 특징을 '대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보편적인 산문체에 서 벗어나 대상이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문체적 특징이 작품 곳곳에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문체는 사색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구상적이라기보다 추상적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 이명준은 내면적 갈등과 고뇌에 찬 인물이다. 그리고 제3국으로 가는 타고르 호 선상에서의 회상 내용이 주된 줄거리를 이루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사색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다 위에서 윤애와 은혜와의 사랑의 회상, 끝까지 따라 다니는 갈매기에 대한 환상 등은 시적인 분위기와 시문체적인 표현기법과 잘 조화되고 있다.

또 작가 최인훈은 7년 동안의 미국생활에서 오는 언어 습관에 의한 미국식 표현,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받은 일본식 언어투가 곳곳에 드러나기도 한 것이 특이한 표현법이다.<sup>27)</sup> '시간을 죽인다'라든지 주격조사 '-이' 대신 '-의'를 가끔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광장」을 지도할 때는 작품 내용 속에서 위와 같은 표현상 특징을 지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주제와 사상

주제란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중심사상이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씌어졌는가라고 할 때의 '무엇'에 해당하는 의미가 주제이다.

27) 김옥동(1996),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 지성사. p.49.

주제 발견의 방법은 등장 인물을 통하여, 갈등 상황을 통하여, 배경을 통한 주제 발견 등이 있다. 인물을 통한 주제 발견은 그들이 어떤 유형의 인물인가, 그들의 언어, 성격, 생활상, 가치관, 욕망 등을 살펴보는 데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갈등 상황을 통한 주제 발견은 그 소설이 무엇과 무엇의 갈등인지 살펴보는 데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배경을 통한 주제 발견에서는 특히 배경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주제는 작품 속의 독립된 요소들을 통일하며 작품 전체는 하나의 주제를 통하여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주제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한 작품에 대한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1) 「무정」

「무정」에서는 민족주의 사상, 근대 문명에의 지향 의식, 신교육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일체의 봉건적 유습을 극복하려는 주제 의식을 볼 수 있다. 결말에 인물들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은 작자의 이러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화기 한국사회가 당면한 근대화의 과제는 근대적 지식과 문명을 사용하여 민중의 근대적 각성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놓인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이 시기의 지식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은 당시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민족의 현실적 삶의 상실된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구체화된다. 「무정」은 이런 의미에서 계몽적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하겠다.

계몽 문학은 민중의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이다. 전래적인 고루하고 미망한 정신을 타파하고 오성에 따른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자유로운 지식을 보급하여 민중을 무지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고자하는 것이 계몽 문학의 뜻이라 하겠다.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민중들에게 자극이 되는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계몽주의를 소설 내용과 함께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무정」의 계몽적 성격은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형성되는 일종의 사제 관계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형식과 선형, 형식과 하숙집



노파, 병욱과 영채, 형식과 세 여성 간에는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가르침을 주고 받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봉건적 가치관의 타파, 자유 연애와 결혼, 자아의 확립, 민족주의, 문명 개화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고 설교식으로 전달되고 있어 근대 소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평가할 정도로 계몽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형식과 영채 사이에서 표출되는 한의 정서, 신여성과의 자유 연애 등 흥미로운 요소가 적절히 가미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윤병로<sup>28)</sup>는 「무정」은 한국 근대 소설의 시발점이고, 1910년대의 과도기적 시대상과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민족의 고전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품 「무정」은 그 내용로나 문학사적 의의로 보아 근대적인 의미가 작품 전체에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작중 인물들이 근대적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구성과 문체가 그렇고 주제가 근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사적인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신소설 시대에 새로운 사상과 문체의 면모를 보이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로 그 의의를 삼을 수 있다.

이광수의 계몽성과 민족주의를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학습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 작품이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문학사적 의의를 삼게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지도되어야 한다.



## 2)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고발한 것이다. 병든 아내를 두고 일을 나가야만 하는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은 곧 굴욕 속에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성을 대변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운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행운 뒤에는 더 큰 불행이 도사리고 있어 결코 행복의 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인력거꾼 김첨지는 생계를 위해 병든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을 나가 의외의 큰 돈

---

28) 윤병로(1993), 앞의 책, p.235.

벌이를 한다.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처럼 술에 취한 김첨지는 조금 전에 자기를 모멸하던 어떤 여인에게서 받은 불쾌감, 돈에 대한 복수심, 병든 아내가 곧 죽었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으로 한바탕 푸념을 늘어 놓는다. 궂은 비를 맞으며 취중에도 아내가 먹고 싶었던 설렁탕을 사들고, 행랑방 셋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이미 죽은 뒤였다.

행복과 불행이 대립되는 가운데 당대의 궁핍한 삶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안겨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작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는지 한 것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가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처럼 보인다. 이 소설 속에 그려진 인물의 삶이나 사회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게 되면 진한 감동을 얻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비가 오기 때문에 인력거를 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대립적인 구조로 설정하여 사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손님을 많이 태우게 되는 행운과 몸져 누운 아내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주인공 김첨지는 끊임없이 심적 갈등을 느끼며 인력거를 끈다. 비가 내리는 암울한 분위기와 첫 행운, 그 행운 뒤에도 계속되는 돈벌이지만, 열다가 만 비와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뭔가 불길하다는 예감으로 상반된 상황이 연속된다. 그러나 삼순구석하는 김첨지는 생존을 위한 욕구만이 앞선다.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 김첨지는 잘 알고 있다. 돈만 있으면 술도 먹고, 아내의 병을 고치고 먹고 싶어 하는 설렁탕도 사 줄 수 있으며 개똥이에게 죽도 사 줄 수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김첨지는 돈을 저주한다. 그것은 술주정이기보다는 회한의 표현이다. 단순한 인력거꾼으로서 강력한 자본주의 물결에 밀려 삶의 공간이 축소되는 데 대한 서러움이다.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을 부정한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처럼 아내는 죽는다. 김첨지는 소망하고 추구하던 것을 성취하고 설렁탕을 사 들고 갔을 때, 아내의 죽음은 김첨지에게 억지 웃음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당시의 조선의 얼굴이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초기 지식인 중심의 자전적인 소설을 극복하고 식민지 현실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작품이 사실주의 수법에 의해 씌어진 것과, 현진건의 문학적 특징이 사실주의 확립이라는 것은 학습 요소로서 중요시 다루어야 하

겠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작가의식이 하층민의 삶을 겨냥했다는 것 또한 특이한 사항이므로 소설사적인 지도에도 유의해야 하겠다.

### 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문학 세계는 그 서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효석은 한때 유진오와 함께 동반자 작가로서 도시의 비참한 삶을 다룬 경향적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순문학적 예술과 경향의 《구인회(九人會)》에 가담하면서 본격적 서정주의 문학을 구축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능을 자연과 조화시켜 향토적 정감이 넘치는 서정성을 부각시켜 왔다. 「메밀꽃 필 무렵」은 바로 이러한 서정주의 문학의 백미로 인간 심리의 순수한 자연성을 소박한 융합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서정성을 시적 경지까지 끌어 올려 우리 문학의 낭만주의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유희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탐미적 관능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주인공 허생원과 나귀의 유사점에서 발견하고 있음은 대부분 문학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이효석 문학의 세계에서 보였듯이 인간의 본능을 자연과 조화시킨 서정성에 주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생원과 나귀를 상징적으로 등장시켜, 이 둘 사이엔 외모나 성격상 공통점이 있으며, 정서적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서정적 정감을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설의 주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작품에서 허생원과 나귀는 정서적으로 융합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나귀의 과거 내력이나 외모, 행동 양상이 허생원과 흡사하다. 나귀의 눈곱 낀 눈은 바로 나이 든 허생원의 모습을 대변하며, 암나귀를 보고 발광하는 늙은 나귀의 행동은 충주집을 찾아가는 허생원을 닮은 것이고, 강릉집 피마에게서 새끼를 본 것은 성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고 동이를 얻은 허생원과 유사하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지은이의 주제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주제를 '자연적이고 신비한 인간의 본원적 애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지도에서는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을 찾도록 하여, '자연과의 관계에서 친화와 일체감',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화해'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효석의 문학적 특성을 서정적 미학<sup>29)</sup>이라고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이효석의 소설적 특성은 서정성, 낭만적 경향, 자연과 인간의 융합 등을 들 수 있다. 그 특성적인

면을 작품에서 찾아 정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4) 「광장」

이 작품의 주제는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해명, 분단된 상황 속에서 고뇌하며 방황하는 지식인 청년의 삶의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은 '광장, 제3국의 선택, 갈매기의 상징'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주제가 드러날 수 있으며, 작품의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이 작품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그것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시도했다. 따라서, 작가적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재로 다루는 것이 금기시됐던 1960년대의 상황에서, 지은이는 이러한 문제를 정면에서 다룸으로써 역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이명준은 남과 북이라는 대립적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볼 수 있다. 그는 남이든 북이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족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염증을 느껴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을 택했다. 그러나 이명준은 제3국을 선택한 뒤 자살이라는 비극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역사적 현실의 거센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장은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인공 이명준은 이러한 광장을 추구하지만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남한은 지향점을 상실하여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며, 북한은 자유를 상실한 채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섬기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명준은 새로운 광장을 찾아 제3국을 선택하지만 인도로 가는 바다 위에서 진정한 광장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고 바다에 투신한다.

이 작품에서 남북 분단의 이데올로기 문제는 광장과 밀실이라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보장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이 밀실이라고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공동체적인 삶의 현상이 광장이다. 인간에겐 밀실과 광장이 다 필요하다. 밀실과 광장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로로 연결될

29) 金用成·禹漢鎔(1989), 韓國近代作家研究, 三知院, p.273.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준이 자살에 이르는 삶은 바로 광장과 밀실의 통로를 발견하려는 과정, 즉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밀실과 광장의 통로를 발견하는 방법과 가능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명준의 경우 남한 사회도 북한 사회도 아닌 제3국을, 그리고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방법으로서 온당한가 하는 것은 문제로 남는다. 중요한 것은 밀실과 광장의 통일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제3국의 선택'의 의미이다.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때, 그가 경험해 본 남북한의 상반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애와의 사랑의 실패와, 단 하나 삶의 의미였던 은혜마저 전사함으로써 이명준은 조국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제3국을 택했다.

한편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작품 속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흰 갈매기는 상징적 존재이다. 크레파스보다 진한 바다 색깔과 대조되어 다른 어느 장치보다 쉽게 인식되는 흰 갈매기 두 마리는 은혜와 그녀가 낳았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상징물이다. 그 새들이 따라오는 것은 그의 과거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흰 빛깔은 원래 순결을 상징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한다. 두 마리 갈매기가 계속 따라오는 한, 주인공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주인공은 제3국을 선택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지만, 갈매기는 그 출발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를 깰려고 버리고 새로이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주인공의 죽음은 일차적으로는 갈매기들로부터, 즉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전후문학은 분단의 민족적 비극을 다룬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분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분단 문제와 관련하여 「광장」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교적 균형있게 다룬 첫번째 작품이다.<sup>30)</sup> 이명준의 회상을 통하여 남과 북의 실상과 허상을 균형있게 매우 지적인 시각과 문체로 서술했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삼을 수 있다. 즉 남한만 좋고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제한적으로 다룬 이전의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과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면서 의의라 할 수 있겠다. 또 「광

30) 김옥동(1996). 앞의 책. p.57.

장」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지식인의 고뇌를 지적인 접근으로 살핀 소설이라는 데 우리 소설사에 중요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sup>31)</sup>

「광장」의 주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정한 광장과 밀실을 찾지 못 한데서 오는 지식인의 고뇌에 찬 아픔, 스스로의 광장을 개척하려는 과정에서 과거를 지울 수 없는데서 오는 괴로움, 은혜와 그녀가 낳았을지도 모르는 아이에 대한 괴로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하는 학습 문제를 제시하여 토론학습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의 문제를 균형있게 작품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된 배경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31) 김영화(1987). 分斷狀況과 文學 -崔仁勳의 「廣場」-. 玄谷梁重海博士華甲紀念論叢. p.61.

### Ⅲ. 소설 지도의 실제

#### 1. 소설 지도의 요점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최인훈의 「광장」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작품들에 대해 학습해야 할 중요한 목표와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하고 해석해 나가고자 한다. 소설 지도에 앞서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목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와 문제점을 모르고서 지도에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목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 대상 작품이 수록된 교과서에 나타난 단원의 명칭을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목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 정리와 해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가 선명히 부각될 것이다.

중요한 요소와 덜 중요한 요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요소들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교사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목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교사는 다양한 수업 기술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에 흥미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여 학습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도 그들의 학습해야 할 내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무정」

〈표 - 1〉 「무정」 수록 교과서 일람

연번	저 자	출 판 사	소 단 원 명	수 록 내 용(범 위)
①	박경신 외 4인	금성교과서(주) ㉔	소설의 특성과 갈래	123~124회
②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사(주) ㉕	전환기에서의 저항과 창조	"
③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사(주) ㉕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
④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㉖	소설의 본질과 특성	"
⑤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㉕	세월의 파도를 넘어	124~125회
⑥	성기조	학문사 ㉗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
⑦	이문규 외 1인	선영사 ㉘	한국문학의 흐름	2~3회
⑧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학사 ㉙	문학과 현실	123~124회
⑨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㉚	민족 문학의 주체적 정립과 발전	88~89회
⑩	우한용 외 3인	동아출판사 ㉛	일제 강점기의 문학	124~126회
⑪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㉜	현대 소설의 등장	123회 일부~124회

이 작품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위 표의 소단원명에 따르면 「무정」을 통해서 먼저 소설의 본질, 특성과 갈래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 작품을 지도하는데 있어 학습자들에게 소설의 이런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 강점기에 민족문학의 주체적 정립과 발전 과정을 이해시키고, 문학사적 의의와 함께 현대적 소설의 등장을 증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무정」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일제하 우리 민족의 문학적 대응방식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학습자 지도에 대한 예비적인 준비는 갖추어진 셈이다.

이 작품은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전문을 실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을 수록해야 된다. <표 - 1>에 따르면 교과서 편저자들은 총 11개의 교과서 중 서두 부분과 중간 부분을 수록한 ⑦과 ⑨를 제외하고는 제123회부터 126회까지 연재분을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작품의 끝부분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교과서 편저자들이 작품의 결말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것은, 그 부분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소설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민족문학과 관련된 편저자들의 공통적 관심사가 작품의 결말 부분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실제 지도의 현장에서는 이 결말 부분에 담긴 소설의 요소와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나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의 지도를 통해서도 학습해야 할 목표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와 문제점은 소설의 부분 해석을 통해 작품 전체의 이해와 감상에 나아가도록 맞추어져 있다. 부분을 통한 전체의 파악은 치밀한 사전 준비와 설계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런 점이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사들의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습해야 할 목표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무정」을 학습해야 할 목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고, 그 성격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가 학습 목표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민족문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비적이며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작품 세계가 보여주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외세의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적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민족 전체의 위기 상황에서, 민족적 지도자의 출현과 민족 계몽이 최우선적 과제로 여겨지던 당시의 실상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활동상은 이러한 목표를 이해시키는데 적절한 예에 속한다. 이광수 문학을 가리켜 계몽주의 문학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러한 목표 설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무정」이 최초의 한국 근대 장편소설이라는 기존의 평가에 대해 작품을 통해 그 구체적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여기에는 문체나 표현 기법, 사건과 인물의 행동 등 소설의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작품을 통해 소설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작품을

통해 소설의 개념과 본질, 특성과 갈래 등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문제 연구를 통해 「무정」의 근대소설적 특징을 밝혀내고, 작품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소설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들 이외에도 「무정」이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며,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 학습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의 생애에서 어떤 점이 이러한 작품을 낳게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작가의 전기에 대해서는 「무정」을 수록한 여러 교과서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만 다루거나 아예 외면해 버리고 있다. 이광수 자신의 지나친 친일 행각 때문에 그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학습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위의 학습목표와 긴밀한 관련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해야 할 목표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문제점 해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정」을 학습해야 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첫째, 「무정」이 고소설이나 신소설보다 형식과 내용에서 발전된 측면을 이해시키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위의 학습목표와의 긴밀한 관련하에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문체나 표현기법, 시점과 사건, 인물의 행동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소설보다 나아진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정」의 갈등과 화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는 '이형식, 김선형, 박영채'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과 관계망을 도식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관계망이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면 그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구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제의 제시와 해결의 과정을 학습자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요체라 할 수 있다.

셋째, 당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문학 작품은 시대와 현실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당대 사회와 관련되게 된다. 식민지 시대라는 상황하에서 개인과 사회, 개

인과 민족 또는 국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삶의 진실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학습자들에게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소설 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한다.

넷째, 이광수의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사상 형성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작가의 생애와 사상 형성과정을 탐구하는 일이다. 작가의 생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사상 형성의 증대한 요인과 전환점 등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외에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개인과 민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무정」의 시점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개인과 민족과의 관계는 이 소설이 계몽주의 소설이라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개인들의 갈등이 민족주의적인 신념의 고취를 통해 극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소설 지도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또, 이 소설의 시점은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전제로 하지만, 지나치게 작가가 개입하여 논평하고 설명하는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작품 이해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 2) 「운수 좋은 날」

〈표 - 2〉 「운수 좋은 날」 수록 교과서 일람

연번	저 자	출 판 사	소 단 원 명	수 록 내용(범위)
①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㉔	소설의 구성	전 문
②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㉔	작품의 내면화	위기~끝
③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㉔	역사와 현실을 통한 가치	전 문
④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㉔	스토리와 플롯	"
⑤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㉔	인물과 배경	위기 단락만 생략
⑥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㉔	구성과 시점	전 문
⑦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㉔	주제와 스토리	"
⑧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㉔	소설의 구성	"
⑨	권영민	(주)지학사 ㉔	소설의 세계	"
⑩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주) ㉔	소설의 구성과 시점	발단과 결말

이 작품은 1924년 『개벽(開闢)』 6월호에 발표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도시 빈민층이 궁핍한 생활상을 형상화한 단편소설이다. 위 〈표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교과서 중 ②.

5. 10의 3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소단원명에서 지도해야 할 요목으로는 소설의 구성과 시점 등의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물과 배경, 주제와 스토리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지도함에 있어 소설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시점, 인물, 배경 등을 통해 작품 전체의 이해와 감상에 지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의 개념과 유형,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구조의 변화 등이다. 먼저 「운수 좋은 날」이 단편소설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의 차이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단순 구성에 따른 사건 전개와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인물들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의 반어적 의미는 구성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학습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본다.

둘째,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924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시대가 일제 강점기이며, 김철지의 사회적 계층 등의 파악을 통하여 당시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학습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당대 우리 민족의 삶의 어떠했던가를 작품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이 소설의 표현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즉 직접 제시나 간접제시나, 작중 인물들의 대화 내용 등이 소설지도에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 소설에서 김철지의 욕설이나 속어 사용 등이 작품의 미학적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소설의 본질과 종류, 스토리와 플롯 구분 등이 학습 목표로 제기되었다. 이는 소설 요소의 기초 이론 이해와 단편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목표이다. 스토리와 플롯의 구분에 관한 지도 과정에서 소설이 인과관계의 치밀성을 중시하는 문학 갈래임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학습 문제는 학습 목표와 긴밀한 관계 하에 제시되어야 함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운수 좋은 날」에서 학습해야 할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들은 대개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작품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의 내포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행운의 상승과 불행의 하강이란 구조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반어성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어쩌면 이 작품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면 내용과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학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수 좋은 날」의 구성 단계를 나누고 구성상 특징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이것은 첫째항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단편 소설의 구성 단계를 재조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법일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설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4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어<sup>32)</sup> 소설 지도에 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편소설이므로 단순 구성에 대한 학습을 소설의 전개 내용에 따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작중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 소설의 사건 전개에 따른 갈등 양상을 정리해서 보여 주어야 한다. 작중인물이 사건 전개에 따라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운수 좋은 날」의 시간적·사회적·자연적 배경에 대하여 살피는 문제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검토해 보게 하고, 특히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겠다. 작품 속에서 배경이 작품 전개와 결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아 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서두에서 아침에 눈이 올 듯 하다가 비가 내리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 사건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인물과 함께 배경의 역할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작중 인물의 성격과 복선에 관한 문제이다. 소설 지도에서 작중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지도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에 해당한다. 소설 자체가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어떤 성격이고 어떤 자세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서로 연관시켜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대 소설에서 작중 인물은 사건과 배경의 변화에 따라 성

32)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는 구성 단계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4단계 구성은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발단단계, 사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갈등과 분규가 일어나는 전개단계, 갈등과 분규가 가장 격렬해지고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동시에 사건 해결의 분기점을 이루는 절정단계,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수습되어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말단계로 이루어진다. 5단계 구성은, 4단계 구성에 위기단계가 더해져서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단계로 설정되는 구성 방식이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또는 작품에 따라 이러한 구성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와 같이 제시되었다.

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sup>33)</sup>이 많다는 사실을, 고소설의 전형적 인물과 대비하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건과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뿐만 아니라, 장차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건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귀결되도록 만든 장치가 복선이다. 표면상 주인공의 주된 줄거리보다는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지만, 사건 해결에 있어 주된 줄거리와 밀착되면서 어떤 긴장감이나 해방감을 주게 된다. 복선은 그 수효가 너무 많거나 분명해서도 안된다. 예컨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놀라움의 쾌감을 줄 수 있도록 장치하면 되는 것이다.

여섯째, 이 작품의 문학적 경향, 곧 작가가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의 방식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문제는 현진건의 다른 작품들을 읽고 「운수 좋은 날」과 비교하여 그의 작품 전체 경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말한다. 그의 특유의 문체, 작품 형상화의 기법, 작품에 나타나는 반어적 구조 등을 다른 작품들과 병행하여 학습하도록 지도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중심으로 '인생을 위한 가치'의 양가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침지를 중심으로 볼 때, '돈'과 '아내'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돈과 관련된 상승의 플롯과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하강의 플롯 사이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고,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요소를 정리 해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설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고 현실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과 비평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학습 요소들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인생을 위한 가치'를 묻는 문제 하나가 제시되어 올바른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소설

33)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소설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인물의 유형은 그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protagonist)과 반동 인물(antagonist), 성격에 따라 전형적(典型的) 인물과 개성적(個性的) 인물, 그리고 성격의 종류에 따라 평면적 인물(flat-character)과 입체적 인물(round-character) 등으로 나눈다.

지도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신장시키고 탐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 문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많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메밀꽃 필 무렵」

〈표 - 3〉 「메밀꽃 필 무렵」 수록 교과서 일람

연번	저 자	출 판 사	소 단 원 명	수록 내용(범위)
1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㉔	소설의 인물과 배경	전개 ~ 결말
2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㉕	문학의 구조	"
3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㉖	묘사, 설명, 문체	발단 ~ 전개
4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㉗	구성과 구조	전개 ~ 결말
5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㉘	구성과 배경	전 문
6	권영민	(주)지학사 ㉙	소설의 배경	"
7	김봉균 외 1인	지학사 ㉚	갈등과 화해	"
8	오세영 외 1인	천재교육(주) ㉛	인간과 언어의 탐구	"
9	성기조	학문사 ㉜	인물과 배경	"
10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주) ㉝	현대 문학의 본격적 전개	절정 ~ 결말

이 작품은 1936년 『조광(朝光)』지에 발표된 것이다. 강원도 산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인간상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위 표에 의하면, 주를 이루는 단원명이 소설의 배경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배경으로써 서정적 장면 제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서정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며, 그것이 작품 전체 구조에 작용하는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5권의 문학교과서에 전문이 실려 있지만, 전문이 수록되지 않은 교과서도 대부분 달밤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묘사한 부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대부분 교과서의 편제가 단원명에 따른 문학 일반론이나, 소설 이론을 먼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다음에 작품을 수록하여 감상하도록 되어 있다. 위 표에도 소설의 요소를 단원명으로 제시한 교과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인물, 배경, 묘사, 문체, 구조, 갈등 등의 요소가 중요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요소들은 학습 목표에서 다

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인물과 배경에 대한 학습 목표가 대다수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어 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서 배경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인물은 그 배경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학습 요소로 제시된 것이다. 「메밀꽃 필 무렵」에 묘사되고 있는 인상적인 배경은 어떤 분위기이며, 거기서 작중 인물들의 성격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학습자들에게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사회와 역사적 환경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작품의 배경이 작중인물들과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주시시키고 학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소설에서의 언어 표현 요소가 갖는 미적 기능의 중요성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곧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은 어떠한 요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작가의 사실적 묘사에 충실한 필체가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학습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셋째, 문체상의 특징을 학습 목표로 들었다. 이 소설의 문체는 사실적 표현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시골 장터의 묘사,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하얗게 핀 낭만적인 들길 묘사 부분 등은 그 사실성이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작품 감상에 주시키며 이해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민족의 인연, 유랑, 만남의 원형 의식 등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한국적인 자연 배경, 작중인물들의 만남, 나귀와 허생원의 관계 등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의식 속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외에 구성의 본질과 종류를 학습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소설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 이 작품 이해와 감상의 학습 요소가 되고 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전체 짜임을 학습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들에게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해야 할 것이다.

목표로 내세웠던 학습 요소들이 학습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습 문제들은 작품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메밀꽃 필 무렵」에서 달밤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여름날 달밤이다. 달밤이라는 서정적 분위기는 작중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소설 전체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들길, 메밀밭, 개울' 등의 향토적 배경과 연관시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은 사건 전개보다 배경 묘사에 중점을 둬으로써 작품의 분위기 형성, 사건의 진행, 주제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허생원과 나귀의 유사성이나 일치점을 작품에서 찾는 문제이다. 사실적 이해의 문제로서 이를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허생원과 나귀는 어떤 점에서 융합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허생원과 나귀에 대한 묘사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학습자들에게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는 이 작품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소설을 다른 소설과 비교하여 구성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나름대로 구성상의 특징을 지니게 마련이므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를 말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과거 회상과 현실 묘사, 낮과 밤을 적절히 교차시키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한 작품에서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소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도 결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인공의 인생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허생원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학습자들에게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은 그 인물을 특징짓는 흥미, 욕망, 정서, 도덕, 윤리 등을 통해서 파악된다. 이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그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체상의 특징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 소설의 문체는 주어가 없는 문장, 직유와 은유, 여름 달밤의 산길 묘사의 사실적 문체 등이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 복선 역할을 하는 사건, 핏줄의 만남이라는 운명적 동기를 핵으로 하는 작품으로서 그에 동원된 소재 찾기, 주제 알기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허생원의 떠돌이

삶과 동이의 앞으로 전개될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관심을 끌게 한다. 추리 상상적인 문제로서 학습자들이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것인지는 결말 부분에서 파악될 것이다. 결말 이후의 여운과 암시를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4) 「광장」

〈표 - 4〉 「광장」 수록 교과서 일람

연번	저 자	출 판 사	소 단 원 명	수록 내용(범위)
①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small>환</small>	역사의 인식(認識)	후반부-절정
②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주) <small>환</small>	산업화와 민족 문학의 새로운 단계	"
③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주) <small>환</small>	현대(現代)의 문학	"
④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small>환</small>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결 말
⑤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small>상</small>	계재와 주제	후반부-절정
⑥	상기조	학문사 <small>환</small>	소설과 현실 상황	결말
⑦	김봉균 외 1인	지학사 <small>환</small>	갈등(葛藤)과 화해(和解)	후반부
⑧	박갑수 외 2인	지학사 <small>환</small>	분단 인식과 인간 탐구의 소설	절정~결말
⑨	권영민	(주)지학사 <small>환</small>	한국 광복 이후의 문학	후반부
⑩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small>상</small>	소설의 구성	결말 일부
⑪	오세영 외 1인	천재교육(주) <small>환</small>	역사(歷史)의 거울	"
⑫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small>환</small>	역사 인식과 현실 대응	"
⑬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small>환</small>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	"
⑭	우한용 외 3인	동아출판사 <small>상</small>	우리 시대의 문학	후반부
⑮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small>환</small>	역사적 삶의 소설화	절정~결말

이 작품은 1960년 10월 『새벽』지에 중편소설로 발표되었다. 후에 작가에 의해 장편으로 개작되었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고쳐 씌어진 바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남북 분단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 이념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려 한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 문학이 역사와 현실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하는 소설이라는 점 등에서 문학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sup>34)</sup> 특히 18종의 문학교과서 중 15종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니는 비중의 크기를 느끼게 해 준다. 위 <표

34) <표 - 4>의 문학 교과서 목록 15권 p.264.

- 4)의 단원명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광장」은 서로 대립되는 두 이념 체제가 존재하고, 주인공은 두 체제인 남한과 북한을 체험하면서 환멸을 느껴 제3국으로 가는 선상에서 자살한다. 15종의 교과서에는 모두 주인공 이명준의 선상 회상 장면과 자살하는 결말 부분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학교과서 편저자들은 「광장」의 후반부가 이 소설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판단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의 학습 목표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을 종합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 파악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에서의 생활과 북한에서의 생활, 6·25 참전과 포로 생활, 제3국 선택 그리고 자살 등의 과정을 통해 분단 민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장」과 「밀실」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인공 이명준이 북한을 밀실이 없는 광장이라고 비판하고, 남한을 광장이 없는 밀실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갈매기」와 「바다」가 상징하는 바를 학습 요소에 곁들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소설의 배경 사상 및 상징적 기법 파악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 소설이 처음 나온 때가 1960년 4·19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5)</sup> 작가 최인훈 자신이 소년 시절을 북한에서 보냈던 전기적 사실과 4·19로 정신의 자유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여건이 이 소설을 낳게 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분단 문학 이전의 1950년대 전후문학에 대하여도 병행해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작품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서술의 시간 속에 드러난 「광장」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제3국으로 가는 타고르 호 선상에서의 이틀 동안이다. 허구의 시간인 회상 속의 배경과 실제 서술의 시간에 드러난 배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배경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파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광장」에서 회상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 민족의 혼란기인 8·15 광복으로부터 6·25가 끝나는 시기의 남한과 북한이다. 이 때의 상황을 소설화한 것이 1960년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35) 「광장」의 서문. 舊政權下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가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共和國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체제와 이념을 모두 체험한다. 그리고 양체제 모두 비판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된 소설 작품이 발표되기 이전에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 분단의 이념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후문학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이 있고, 이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시대의 증언자로서 이를 대변하고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문학 작품이 나온다는 것도 유의하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소설의 구조 유형을 학습 목표화 했다. 소설의 구조는 작품마다 다르다는 것을 다른 소설을 예로 들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광장」은 이야기된 시간 속의 배경과 이야기 시간 속의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상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음에 유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학습 문제들 중 중요시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중복된 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묶어서 정리·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주인공이 조국이 아닌 중립국 선택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선택의 귀결이 죽음(자살)으로 이르는 이유에 대한 해명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작품 내용 학습 요소로서 가장 비중 있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생활하였고, 그 양 체제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3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상 타고르 호에서의 그의 의식 세계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 소설에서 상징하는 학습 요소들(바다, 갈매기 등)도 잘 익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작품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핵심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밀실과 광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주인공 이명준에 의해 제기된 남한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장과 밀실의 사전적인 의미와 작품 속에서의 상징적·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주인공은 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게 되었으며, 북한에서의 이명준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왜 중립국을 택했는지 등의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이 작품에 나오는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주인공 이명준은 타고르 호 선상에서 큰 새와 작은 새를 나오는 갈매기에 홀린 기분이다. 이 큰 새와 작은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왜 바다 갈매기들이 이명준의 의식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작품을 통해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남한에서의 윤애와의 사랑, 북한에서의 은혜와의 사랑과 임신 등과 연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인공이 인식한 남한과 북한 체제의 차이,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의 사랑을 비교하는 문제다. 주인공 이명준의 입장에서 남한과 북한, 윤애와 은혜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광장과 밀실의 상징하는 의미와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 내용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으나,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광장」에서 단원명이나 학습 목표, 학습 문제 등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역사의 인식면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광장과 밀실이 갖는 의미, 주인공의 중립국을 선택하여 가는 도중 선상에서 자살하는 행위 등을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야 한다. 또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정립과 분단문학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의 관계 등도 학습 요소로서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밀실과 광장', '갈매기'의 의미,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이의 애정을 비교하는 것, 작품의 개작과정과 그 의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지도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네 작품의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문제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 해석해 보았다. 단원명과 학습 목표는 교과서 편저의 특성상 연구 대상 작품의 교과서 수록 부분에 한한 내용만이 아닌 것들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작품의 전문을 숙지하고 학습자들을 지도해야 한다. 특히 단원명은 문학의 갈래별, 시대별, 주제별 등 구분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문학의 갈래나 요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 목표가 모두 연구 대상 작품과 동시대의 여러 작품과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제시되기도 한다.

또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에서 소설적 요소와 작품 내용에 관한 것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설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 그리고 보편적 사회 질서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허구적 현실을 통해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비평 정신을 길러주는 문제와 인성 교육 차원에서의 인간성 함양, 상상력을 통한 창조 정신이라는 소설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는 만족할 만하게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평 의식과 인간성 함양의 문제, 추리·상상력을 통한 창의력 발휘에 대한 문

제 제시와 해결 방안은 소설 지도의 실제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단원명과 학습 목표, 학습 문제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설의 구성, 배경, 인물의 갈등, 소설의 기법과 문체, 작품의 경향, 문학적 의의,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 작품에 깔린 사상 등 소설 전체 요소들이 교수·학습 요소로 추출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 2. 소설 지도의 단계

문학 교육의 목적에 따르면 소설 교육도 작품을 즐겨 읽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다. 아울러 소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 보다도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교육적 의의라고 한다면, 소설 지도는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입시나 교과 학습진도 등의 이유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내용전달 중심의 교육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수용자인 학생들 스스로 소설 작품을 즐겨 접하도록 유도하고 감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전문에서는 '문학' 과목의 목표를 '다양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기름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로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sup>36)</sup> 사실 문학작품의 감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작품을 읽는 즐거움의 최종적인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그 작품이 내포된 의미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므로, 스스로 읽어 터득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소설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건강하고 긍정적 사고와 체험을 지니게 되고 결국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도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취하

36) 문학과 교육연구회(1997). 季刊 文學과 教育<겨울, 제2호>. p263.

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소설 학습 지도의 방향을 수용자인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소설지도의 실제 모형을 제시해 보도록 할 것이다. 앞에서 조사 연구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를 소설 지도 내용으로 하고, 지도 방법은 전국 국어과 교사 모임에서 펴낸 '국어과 수업 사례'<sup>37)</sup>와 이대구의 '국어과 교육 방법론'<sup>38)</sup>, 구인환 외 모형<sup>39)</sup> 등을 참고하여 소설 지도 단계와 소설 지도 과정의 실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설 지도뿐만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교사가 무엇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 다음 소설 이해를 통한 내면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계획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단원 학습의 전반적인 학습 준비단계로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하나의 소설 작품을 대할 때, 학습해야 할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학습 목표를 먼저 선정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목표 선정은 단원 학습의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 문항도 마련해 두는 것이 목표에 대한 결과 파악에 대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진단 단계가 된다. 단원 학습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과제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단계이다. 단원 전체를 학습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전 지식을 쌓아두기 위한 내용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설 단원에서는 그 소설에 대한 구성, 인물, 배경과 같은 소설의 기본 요소를 조사하도록 하고, 내면화에 대한 요목 작성도 과제로 제시하여 내면화 단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행해야 할 단계는 지도 단계이다. 계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모든 준비 사항을 차시와 학습 내용에 따라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작품 감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즉 소설의 구성,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소설의 특징, 문학사적 의의 등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제 지도에 임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질문을 준비하고 학습자들

37) 전국국어교사모임 연구국(1995), 국어과 수업 사례, 푸른나무, pp.145~175.

소설 지도의 몇 가지 방법에서 줄거리 요약하기, 고쳐 쓰기, 갈래 바꾸기, 내면화시키기 등. 장편 소설 교육의 한 방법에서 역할 정하기, 자서전 쓰기 등.

38) 이대구(1996), 국어과 교육 방법론, 대교출판사, pp.393~395.

열린 소설 지도 방법에서 텍스트 중심 과제 학습, 과정 중심 과제 학습, 수행 중심 과제 학습 등.

39)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공저(1996),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주)교학사, pp.357~358.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

이 과제물에 의하여 발표토록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표에 따른 수정·보완을 반드시 거쳐 올바른 이해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도단계가 수행되고 나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단계이다. 이 평가 단계에서는 미리 작성했던 문항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지도 단계에서 학습했던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 하겠다.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학 교육 평가의 일반 사항을 고려하여 소설 지도 내용의 문제를 평가 요목으로 작성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단계가 내면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작품 감상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단계이다. 이를테면 작품의 줄거리를 다시 한 번 발표해 보도록 하는 것, 소설 작품의 끝을 이어서 후속편을 만들어 보기, 작중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결론을 맺게 하는 것 등에 대해 직접 발표하도록 하거나 혹은 써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후감을 쓰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추수지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지도 단계에 따라 「광장」을 예로 들어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 5〉 소설 지도 과정

단 계	교 수 · 학 습 내 용
계 획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설정</li> <li>○ 작품의 독해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지 작성-서사 구조 이용</li> <li>○ 줄거리 작성 과제물 제작-서사 구조 이용</li> <li>○ 학습 내용 작성-학습 요점 사항 적용</li> <li>○ 평가 문항 및 내면화 문제 작성-학습 내용 응용</li> </ul>
진 단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 확인</li> <li>○ 질문지 확인</li> <li>○ 과제 확인</li> <li>○ 줄거리 발표</li> </ul>
지 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단계 교수·학습 내용 실시</li> <li>○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 파악</li> <li>• 소설의 구조 유형 파악</li> <li>• 「광장, 밀실,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 파악</li> <li>• 작품의 배경 사상 및 상징적 기법 파악</li> <li>• 이 작품의 주인공 활동 무대 파악</li> </ul> </li> </ul>



단 계	교 수 · 학 습 내 용
지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과 북한에서의 주인공의 삶의 태도 파악</li> <li>•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파악</li>   <li>○ 작품에 대한 개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줄거리 말하기</li> <li>• 작품 분석하기</li> <li>• 작품 내용 도표화 하고 설명</li> <li>• 시대적 배경은?</li> <li>• 남북의 대치 상황은?</li> <li>• 이명준의 활동 무대는 몇 곳인가?</li> </ul> </li> <li>•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 문제는 광장과 밀실이라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는가?</li>   <li>○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이 제3국을 선택하고, 선택의 귀결이 죽음에 이른 이유</li> <li>• '광장, 밀실, 갈매기'의 상징 의미</li> <li>• 주인공이 인식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와 윤애와 은혜에 대한 사람의 차이 비교</li> </ul> </li> <li>○ 작품에 대한 종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품이 나오게된 배경</li> <li>• 작가가 주인공으로 이명준을 선택하게된 이유</li> <li>• 주인공 이명준에 대한 평가</li> </ul> </li> </ul>
평가 단계	○ 작성된 평가 문항 제시
내면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이명준이라면?'에 대한 글을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껏 써보자. (200자 5장 내외)</li> <li>○ 각자 남한을 택했을 경우, 북한을 택했을 경우, 제3국을 택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쓰고 발표해 보자.</li> </ul>

위와 같은 단계에 따른 소설 지도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제도, 즉 입시 대비 학습과 처리해야 할 잡무 등 교사의 중압감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람직한 소설지도의 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테면 일선 현장에서 연구수업을 할 때 교사마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창안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예에 속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방법의 모색을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열린 학습 방법을 부르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실험실습 기자재나 과학 기기를 이용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소설 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3. 소설 지도의 실제

소설 지도의 학습 단계에 의한 지도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소설의 요소, 지도 요점에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지도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광장」에 대한 지도의 실체를 1차교시분 수업안으로 제시한다.

〈표 - 6〉 소설 지도의 실제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확인</li> <li>○ 학습상태 진단</li> <li>○ 동기유발</li> <li>○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갈래는?</li> <li>○ 과제물 확인</li> <li>○ 독해 정도 확인. 줄거리 발표</li> <li>○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 이해</li> <li>○ 작품의 창작 배경 이해</li> <li>○ 소설의 구조유형 파악</li> <li>○ 주인공의 활동 무대 파악</li> <li>○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 이해</li> <li>○ 작품의 창작 배경 이해</li> <li>○ 소설의 구조유형 파악</li> <li>○ 주인공의 활동 무대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편소설</li> <li>○ 과제물 제시&lt;독해 정도 및 줄거리 작성&gt;</li> <li>○ 각 1명씩 발표</li> <li>○ 각자 숙지</li> </ul>	5분	OH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거리 발표</li> <li>○ 작품에 대한 개괄적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줄거리를 발표토록 함 - 작품 내용 숙지하도록 유도</li> <li>○ 작품 분석하기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준의 활동무대</li> </ul> </li> <li>• 작품 속의 현실과 회상</li> <li>○ 이 작품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 공통</li> <li>○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말해 보자. - 심화</li> <li>○ 이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말해 보자. - 심화</li> <li>○ '광장'과 '밀실'의 사전적 의미와 작품에서의 의미를 말해 보자. - 공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 정도 발표</li> <li>○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무대 : 남한생활-윤애와의 사랑(남한정치에 불만)-월북-북한생활-은혜와의 사랑(북한정치에 대한 불만)-중립국행-죽음</li> <li>• 작품 속의 현실 - 8곳 작품 속의 회상 - 24곳</li> <li>○ 시간적 배경 - 광복으로부터 6·25 전쟁이 끝나기 까지 공간적 배경 - 서울과 평양</li> <li>○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재로 다루는 것이 금지됐던 60년대의 상황에서 4·19 혁명으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li> <li>○ 6·25 전쟁이 끝나고 분단된 상황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청년의 삶의 모습에서 민족 전체가 고뇌하고 방황하는 사회적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음</li> <li>○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사전&gt; 여러 갈래의 길이 한군데 모이는 곳에 만드는 너른 마당</li> <li>• &lt;작품&gt;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li> </ul> </li> <li>○ 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사전&gt; 남이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한 비밀스런 방</li> <li>• &lt;작품&gt;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보장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li> </ul> </li> </ul> </li> </ul>	<p>35분</p>	<p>OHP</p>
-----------	---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학습 내용 확인</li> <li>○ 형성평가</li> <li>○ 차시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학습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 질의</li> <li>○ 형성평가 문제지 투입</li> <li>○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준비</li> <li>○ 교과서 내용 학습 준비</li> <li>○ 교과서 학습문제 풀이</li> <li>○ 이명준의 죽음에 대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을 수밖에 없음과 죽지 않았어야 함에 대하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별 2명씩 응답</li> <li>○ 각자 5분 내외로 해결</li> <li>○ 과제물로 각자 해결</li> <li>○ 분단별 토의 학습 준비</li> </ul>	10분	
----	--	--	--	-----	--

☞ 형성평가 문제 ☞

- 이 작품은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되었다. 4·19 혁명의 중요한 정신적 지향인 '자유'의 문제를 이 작품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자.
-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이다. 그것은 바로 광장과 밀실의 통로를 발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광장과 밀실의 통로'란 인간 존재의 어떤 측면을 상징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의 사랑을 비교해 보고, 이 작품에서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 IV. 결 론

이 연구는 현행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 중 10종 이상에 실린 「무정」, 「운수 좋은 날」, 「매밀꽃 필 무렵」, 「광장」 등 4편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소설 학습에서 소설적 요소를 작품별로 제시하여 중심 요소를 추출한 다음, 단원명과 수록 내용(범위), 학습 목표, 학습 문제들을 모두 검토하고 재해석하여 소설 지도에 필요한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려고 하였다. 다음에는 교과서에서 추출된 공통 요소와 소설의 요소별 분석 설명 내용을 중심으로 소설의 실제 지도 과정을 설계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네 편의 소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 작품에 따라 소설의 요소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작품의 서사 구조는 교과서에 제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것도 소설의 5단계 구성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소설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 연구는 내용 순서에 따른 새로운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부분 교과서에는 인물의 성격과 배경에 대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소개된 인물의 성격은 학습자들에게 암기 요소에 불과하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 소설 지도에서는 작중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작품 이해의 관건이 되는 요인이라 판단되어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요령과, 그 구체적 증거를 작품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배경은 인물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도록 했고, 주제와의 관계도 논의하여 학습자들에게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작품마다 작가의 독특한 문체와 기법이 있다. 문체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특히 「무정」에서 강조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문장을 예로 문체와 기법의 문체를 학습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주제와 사상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 경향을 관련시켜 제시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의 주제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은 단원명과 학습 목표, 학습 문제에서 중점 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지도과정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첫째, 「무정」에서는 소설의 본질과 특성, 갈래, 그리고 현대 문학의 등장 등이 중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편소설이어서 대부분 교과서가 작품의 결말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록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과 성격, 배경, 민족적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 문학사적 의의 등이 제시되었다. 학습 문제로는 신소설과 비교문제, 갈등과 화해 구조, 당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 이광수의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등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둘째, 「운수 좋은 날」은 10종 교과서 중 3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이 수록되었고 구성과 시점, 인물과 배경 등이 주요 학습 대상이었다. 학습 목표로는 구성의 개념과 유형,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구조의 변화,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 소설의 표현 기법 등이 해결할 과제였다. 학습 문제는 제목의 내포적 의미, 구성 단계와 구성상 특징, 작중 인물의 내면적 갈등 원인, 시간적·사회적·자연적 배경, 인물의 성격과 복선, 작품의 문학적 경향 등을 묻는 문제들이었다.

셋째, 「메밀꽃 필 무렵」은 10종 교과서 중 5종이 전문 수록되었고, 소설의 배경과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학습 목표에서도 대다수의 교과서가 인물과 배경에 대한 이해 문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언어 표현 요소가 갖는 미적 기능의 중요성, 문체상의 특징, 한국 민족의 인연, 유랑, 만남의 원형 의식 등이 학습 목표였다. 학습 문제로는 달밤이 갖는 상징적 의미, 허생원과 나귀의 유사성, 다른 소설과 비교한 구성상의 특징, 주인공의 인생관, 인물의 성격 등이다. 그런데 허생원의 떠돌이 삶과 동이의 앞으로 전개될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특이했다. 소설의 결말 이후를 상상해 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넷째, 「광장」은 무려 15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작품이 지니는 비중의 크기를 느끼게 해 준다. 이념의 양극화 문제 극복, 분단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작품이라서인지 역사의 인식면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교과서가 소설의 후반부인 이명준이 마지막 회상과 선상에서의 의식 상태, 그리고 자살하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작품에 반영된 역사와 현실 파악, 광장과 밀실의 상징적 의미, 작품의 배경, 사상 및 상징적 기법, 문학사적 의의, 소설의 구조 유형 등이다. 학습 문제로는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 과정

을 살펴보고 그 선택의 귀결이 죽음으로 이르는 이유, '밀실, 광장,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 주인공이 인식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의 사랑 비교 등이 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소설 지도의 실제 과정을 모색해 보았다. 실제 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교사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5단계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면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단계가 끝나면 학습을 마무리 짓는데, 평가 단계 다음에 작품 이해가 끝났으므로 내면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면화 과정은 문학적 체험의 심화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sup>40)</sup>에도 교사와 학습자의 자율성,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내면화 단계의 강조는 소설 지도의 실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18종 문학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들에서 공통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소설지도의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소설 학습지도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나머지 작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교수·학습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나 창의적인 교수·학습개발은 지속적이며 누가적이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다.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18종이나 되어 그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18종 교과서에, 같은 작품이 수록된 것이 많게는 15종이나 되며, 10종 이상에 수록된 작품도 4편이다. 하나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은 국내외, 고전, 현대소설을 합해서 평균 20편 정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 개개인이 나서서 비교 분석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 종류를 5종 정도로 선정하도록 하고, 수록된 작품들은 학교별로 또는 교사들간의 분담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소설 작품 하나를 지도하려면 교

40)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1),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p.83.

가. 교사와 학습자의 자율성,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나. 구체적인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문학 능력이 신장되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다항에서 타항까지 생략>

과서의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 요소를 모르고서 교수·학습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 <자료>

- 구인환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한샘출판사(주).  
권영민(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주)지학사.  
김대행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주)교학사.  
김봉균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지학사.  
김용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대일도서.  
김윤식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한샘출판사(주).  
김태준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주)민문고.  
남미영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동아서적(주).  
박갑수 외 2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지학사.  
박경신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금성교과서(주).  
성기조(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학문사.  
오세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천재교육(주).  
우한용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동아출판사.  
윤병로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주)노벨문화사.  
이문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선영사.  
최동호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대한교과서.  
한계전 외 2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대한교과서.  
김열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상, 賞』, 동아출판사.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 과정(1)』.  
문학과 교육연구회(1997), 『季刊 文學과 教育<겨울, 제2호>』.  
전국국어교사모임 연구국(1995), 『국어과 수업 사례』, 푸른나무.

### <저서>

-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인환 외(1989), 『韓國現代 長篇小說 研究』, 三知院.
- 윤홍로(1978), 『한국 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일지사.
- 조남현(1985), 『한국 현대 문학의 磁界』, 평민사.
- 한승옥(1984), 『李光洙 研究』, 鮮一文化社.
- 윤병로(1993), 『한국 근·현대 작가·작품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현길연(1990), 『한국소설의 분석과 이해』, 문학과 비평.
- 이상신(1990), 『小說의 文體와 記號論』, 느티나무.
- 정한숙(1994), 『현대 소설 작법』, 장락.
- 장양수(1994), 『韓國의 問題小說』, 集文堂.
- 김동환(1996), 『한국 소설의 내적 형식』, 태학사.
- 김용성·우한용(1989), 『韓國近代作家研究』, 三知院.
- 김옥동(1996),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주)문학과지성사.
- 이대구(1996), 『국어과 교육 방법론』, 대교출판사.
- 방영목 외(1996),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주)교학사.

<논문>

- 김영화(1987), 『分斷狀況과 文學-崔仁勳의 「廣場」-』, 玄谷梁重海博士華甲紀念論叢.
- 문성숙(1991), 『韓國 近代小說論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안성수(1989),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論 - 「배따라기」, 「狂炎 소나타」, 「운수 좋은 날」, 「巫女圖」를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박인기(1985), 『문학교육의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모(1988), 『소설교육 시론』,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옥(1983), 『교과서 작품 분석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선(1989), 『소설교육의 목적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태열(1992), 『학습자 중심의 소설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경(1991), 『소설 단원의 분석 및 평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덕기(1982), 『플롯을 중심으로한 소설 독해지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기(1982), 『소설지도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시한(1986), 『소설교육의 한 방법 - 구성(플롯)을 중심으로』, 『모국어교육 4』, 모국어학회.
- 이향숙(1988),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 수용이론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 A Study on Teaching Novels in Literature Texts of High Schools

Seo Jong-Pil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In this dissertation, the writer compares and analyzes four novels put in more than 10 texts among 18 literature texts being now used in high schools -- Moojung (무정), Unsujoheun-nal (운수좋은 날), Memilkoch-pil-mooleop (메밀꽃 필 무렵), Kwangjang (광장), extracting the vital elements required to teaching novels by examining unit titles, teach aims and problems and by retranslating the content of literary works. All the steps for teaching novels from a planning step to a teaching one a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common elements extracted from texts and the analyzed content of novel constituents.

The structure of novels in the texts consists of 5 steps -- beginning, development, crisis, climax, and conclusion. However, since these steps are not helpful to teaching novels, a new formative model is presented based mostly on content order. Grasping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in novels is vital to understanding literary works. So the writer tries to find out the way of grasping characters' personality in literary works.

By examining the effect of background on characters' personality and the relation of background to topic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ckground to learners. Learners themselves are induc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styles and techniques through sentences in literature works. In addition, they are supposed to realized how to grasp not only the topics in texts but also the topics in novels.

Next, a few important points are summarized in unit titles, teaching aims and problems.

Moojung (무정) is a long novel, so the ending part of it is generally put in most text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Through Moojung (무정) in this study, the writer researches chiefly into the comparison of novels existing in those days with modern novels, the structure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ose societies, the value of human's existence, and Lee kwang-soo's illuminism and nationalism.

In Unsujoheun-nal (운수좋은 날), the writ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connotative meaning of titles, the constituent steps and peculiarities, the cause of characters' internal conflict, social natural background, characters' personality, the foreshadowing of what might happen and the literary tendency of works.

In Memilkoch-pil-mooleop (메밀꽃 필 무렵), the following is examined:

the importance of aesthetic function in expressing language, the Koreans' affinity, wandering, the symbolic meaning of moonlight night, the similarity of Huh Saeng-won and donkey, the character's view of life, and so on. It is unique to this novel to ask how Huh Saeng-won's wandering life is related to Dong-i's future life, which gives learners the chance of thinking about the attitude toward human's existence imagining what may happen after the ending of novels.

Kwangjang (광장) of all the texts contents Lee Myung-jun's last recollection, his state of consciousness on board and committing suicide, which are the latter part of this novel. So this study brings up how a hero chose a neutral nation and why his choice ended in death.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symbolic meaning of "Milsil(밀실), Kwangjang(광장), Kalmegi(갈매기)" and the comparison of Myung-jun's love for two heroines are posed as problems to be solved.

The writer has examined a practical process in teaching novels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facts. Here, a teaching method is divided into 5 steps, among which the step for internalization is thought to be valued very highly. The process for internalization can be regarded as a step for exerting imagination, because learners are able to deepen and magnify their literary experiences through this process. In addition, this step enables learners to have a free discussion and to realize what is their desirable existence. Therefore, much emphasis must be put on the step for internalization in teaching novels.

Texts as teaching aids are a medium connecting teachers with learners. In particular, texts are almost only learning materials to learners. So teachers must analyze and examine texts exactly before giving a lesson. And then they are willing to develop lessons so that learners can achieve their learning ai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ive a better method for teaching novels than that of the existing study. The writer do hope that so many research materials will be produced that they can be used to teach learners novels.

## 附 錄

I.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소설 일람	73
II. 시대별 분류	78
III. 연구대상 작품 학습 요소	84



## I.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소설 일람

연번	저 자	출 판 사	연번	저 자	출 판 사
1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10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2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11	이문규 외 1인	선명사
3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12	권영민	(주)지학사
4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13	김봉균 외 1인	지학사
5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14	박갑수 외 2인	지학사
6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15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주)
7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16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주)
8	김열규 외 1인	동아출판사	17	오세영 외 1인	천재교육(주)
9	우한용 외 3인	동아출판사	18	성기조	학문사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⑨(상)	1960년
계용목	백치 아다다	10(하)	1935년
고골리	외투	①(상)⑤(상)⑨(하)10(상)11(하)	1942년
피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⑥(하)	1774년
김동리	까치소리	⑧(상)	1966년
김동리	무녀도	③(상)⑤(하)⑦(상)⑨(하)18(하)	1936년
김동리	바위	10(상)	1936년
김동리	역마(驛馬)	②(상) ①(상) 15(하) 17(하)	1948년
김동리	올화	④(상)	1978년
김동인	갑자	11(상)	1925년
김동인	광화사	10(하)	1935년
김동인	배따라기	②(상) ③(하) ⑥(하) 13(하)	1921년
김동인	붉은 산	④(하) ⑧(하)	1932년
김만중	구운몽	①(상)②(상)④(상)⑤(하)⑦(상) 12(상)14(상)16(상)17(상)18(상)	1692년
김만중	사씨남정기	11(상)	1692년
김성환	바비도	16(하)	1956년
金承鉉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15(하)	1963년
김승옥	무진기행	④(하) ⑦(하) 11(하)	1964년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⑦(하) 10(상) 13(하) 14(하)	1965년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②(상) 10(하) 18(상)	고대소설

김시습	이생규장전	④(하)⑥(상)⑦(상)⑧(상)⑨(상) ⑮(상)⑯(하)⑰(상)	고대소설
김원일	어둠의 혼	⑰(하)	1978년
김유정	동백꽃	③(하)⑤(하)⑥(상)⑧(상)⑩(상) ⑱(하)	1936년
김유정	만무방	⑯(하)	1935년
김유정	봄·봄	①(하)②(상)④(상)⑫(상)⑰(하)	1935년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③(하)⑯(상)	1966년
김정한	사하촌	④(하)⑪(하)	1936년
김정한	수라도	⑧(상)	1969년
나관중	삼국지연의	⑰(하)	1494년
나스메소오새	도련님	⑩(하)	1906년
노신	고향(故郷)	⑤(상)	1919년
노신	아큐정전(阿Q正傳)	②(하)⑩(상)⑫(하)⑮(하)⑰(하)	1921년
도스토예프스키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⑫(하)⑰(하)	1880년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⑧(상)	1859년
마르케스	요사이 어느 하루	①(하)	1859년
마흐포즈	포로의 옷	①(하)	
모파상	귀향	⑫(상)	
모파상	두 친구	⑨(하)	1870년
모파상	목걸이	②(상)④(하)⑤(상)⑦(상)⑩(상) ⑰(상)	1884년
모파상	미뉴에트	③(상)	1883년
미 상	심청전	⑫(하)⑮(상)	고대소설
미 상	유충렬전	⑮(상)	고대소설
미 상	박씨전	⑩(하)	고대소설
미 상	운명전	⑪(상)	고대소설
미 상	임진록	⑦(하)⑪(상)	고대소설
미 상	장끼전	⑦(하)	고대소설
미 상	전우치전	⑦(상)	고대소설
미 상	조용전	②(하)	고대소설
미 상	춘향전	④(하)⑩(상)⑫(상)	고대소설
미 상	홍보전	⑰(상)	고대소설



박경리	불신시대(不信時代)	⑨(하)	1957년
박경리	풍경(風景) A	⑪(상)	1965년
박완서	裸木	⑮(하)	1970년
박지원	양반전	①(하) ⑤(하) ⑥(하) ⑧(상) ⑨(상) ⑩(상) ⑫(하) ⑮(상) ⑯(하) ㉑(상)	고대소설
박지원	허생전	③(하) ④(하)	고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②(상) ㉑(하)	1934년
박태원	천변풍경	⑧(상)	1930년
박태원	피로(疲勞)	⑬(상)	1935년
발자크	고리오 영감	⑯(하)	19C
파스퇴르나크	의사 지바고	②(하)	1956년
보카치오	데카메론	④(하)	1470년
선우휘	불꽃	④(하) ⑩(하) ⑬(상)	1956년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②(하) ⑥(상) ⑩(하) ⑫(상) ㉑(상)	1605년
생키에비치	등대지기	⑬(상)	1880년
손창섭	비 오는 날	⑯(상)	1953년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④(하) ⑬(하) ⑭(하) ⑮(하)	1962년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⑬(상)	1726년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⑬(상)	1939년
안국선	금수회의록	⑩(하) ⑭(상) ⑯(하)	1908년
안수길	북간도	⑨(하)	1959년
염상섭	두 파산	①(상) ④(하) ⑯(상)	1949년
염상섭	만세전	⑦(하) ⑪(상) ⑫(하) ⑬(하) ⑭(하) ⑮(하)	1923년
염상섭	삼대	⑥(하) ⑧(하) ⑨(상)	1931년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⑬(상)	
오상원	유예	①(하) ⑬(하) ⑭(하) ⑮(하) ⑯(상)	1955년
윤홍길	장마	①(하)	1973년
이 상	날개	②(하) ④(하) ⑧(상)	1936년
이광수	무정	②(하) ③(상) ④(하) ⑥(하) ⑦(상) ⑨(상) ⑩(하) ⑪(하) ⑮(하) ⑯(상) ⑰(하)	1917년
이규보	국선생전	⑬(하)	1241년

이문구	일락서산(관촌수필)	⑩(하)	1972년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⑧(상)	1973년
이범선	무진기행(霧津紀行)	②(하)	964년
이범선	오발탄	⑦(상)	1950년
李人植	銀世界	⑪(상)⑮(하)	1908년
이인직	혈(血)의 누(淚)	①(상)②(하)③(상)⑥(하)⑦(상) ⑩(상)⑫(하)⑬(상)	1906년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⑫(상)⑮(하)	1966년
이청준	서편제	④(하)	
이청준	줄	③(상)	1966년
이청준	침몰선	⑧(상)	1968년
이태준	패강랭	⑨(하)	1938년
이태준	해방전후	④(상)	1946년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①(상)③(상)④(상)⑤(상)⑧(상) ⑩(상)⑫(상)⑮(하)⑰(하)⑱(상)	1936년
장지연	애국부인전	⑪(하)⑮(하)	1908년
전광용	꺼삐딴리	⑤(상)⑩(상)⑪(상)	1962년
전상국	동행(同行)	⑤(상)	1963년
전영택	화수분	⑨(하)	1925년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②(하)	1975년
존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③(하)	1939년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④(상)⑤(상)	1935년
앙드레 지드	좁은 문	⑱(하)	1909년
채만식	논 이야기	⑤(하)⑦(하)⑨(하)⑩(하)	1946년
채만식	치숙	④(상)⑥(상)⑱(상)	1938년
채만식	濁流	⑪(상)⑫(하)⑯(하)	1937년
채만식	태평천하	①(상)②(상)⑧(상)⑬(하)⑭(하) ⑰(하)	1938년
川端康成	雪國	⑫(상)⑮(하)	1937년
최서해	홍염	④(상)⑨(하)	1927년
최인훈	광장	①(하)②(상)③(하)⑤(하)⑥(상) ⑦(하)⑨(상)⑩(하)⑫(하)⑬(하) ⑭(하)⑮(하)⑯(하)⑰(하)⑱(하)	1960년

카 뤼	페스트	⑬(하)⑭(하)	1947년
카프카	변신	①(하)⑦(하)	1919년
톨스토이	부활	⑰(하)	1899년
하근찬	수난 이대	④(하)⑤(상)⑩(상)⑱(하)	1957년
허 균	홍길동전	①(하)③(상)④(상)⑤(하)⑨(상) ⑩(상)⑫(하)⑯(상)⑰(상)	고대소설
헤르만 헤세	데미안	①(상)⑤(상)⑩(하)	1919년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	⑰(상)	1908년
헤르만 헤세	괴로운 길	⑰(하)	1919년
헤르만 헤세	크눌프	⑨(하)	1915년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①(하)④(상)⑤(상)⑦(하)⑩(하) ⑯(하)	1952년
헤밍웨이	인디언 부락	⑦(하)	1925년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⑭(하)	1940년
현진건	고향	⑧(상)⑬(하)⑭(하)⑱(상)	1926년
현진건	운수 좋은 날	①(상)②(상)③(상)④(하)⑤(상) ⑥(상)⑦(상)⑩(상)⑫(상)⑯(상)	1924년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⑪(하)	1960년
황순원	독짓는 늪은이	④(하)	1950년
황순원	목넘어 마을의 개	③(하)⑬(하)⑯(하)	1948년
황순원	별	⑩(상)⑬(하)⑭(하)	1941년
황순원	어둠속에 찍힌 판화	②(하)	1951년
황순원	카인의 후예	⑨(상)	1953년
황순원	학(鶴)	⑥(상)⑧(상)⑫(하)	1956년
후안 발레라	이중의 희생	④(상)	

## II. 시대별 분류

### ◎ 고대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	주 제
1	홍길동전	장편 도술, 사회	조선시대	봉건계급 타파·탐관오리 응징·해외진출 사상
2	양반전	한문, 단편, 풍자	18C - 실학	양반들의 비생산성·특권의식비판
3	사씨남정기	국문, 가정, 목적	중국 명나라 초	처첩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4	박씨전	역사, 군담, 여걸	병자호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5	춘향전	판소리, 열정	조선 영조	계급을 초월한 사랑
6	장끼전	국문, 판소리	조선시대	남존여비와 개가금지 사상 비판·풍자
7	심청전	판소리계	유·불·선 사상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8	홍보전	국문, 판소리계	조선 후기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9	유충렬전	국문, 군담, 영웅	조선 후기	유충렬의 간난과 영웅적 행적
10	구운몽	열정, 양반, 액자	불·유교	인생무상의 자각을 통한 허무의 극복
11	이생규장전	번안성격	조선 전기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12	운영전	몽유록 소설	"	운영과 김진사의 비련담
13	임진록	국문, 역사	조선 후기	민족적 자부심 고취
14	전우치전	"	"	빈민 구제
15	만복사저포기	번안성격	조선 전기	시공을 초월한 사랑
16	조용전	"	"	조용의 영웅적 무용담
17	허생전	한문소설	17C 후반	사대부 비판과 현실에 대한 자각 촉구

### ◎ 신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성격)	주 제
1	혈의 누	계몽	교훈적·계몽적	신교육 사상과 개화식의 고취
2	애국 부인전	역사, 전기	교훈적	국권회복 의지 고취
3	금수회의록	우화, 액자	풍자적·우화적	인간 사회의 모순·정치 비리 풍자
4	은세계	정치	일제직전	반봉건(개화) 사상 고취

### ◎ 1910년~1920년대 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성격)	주 제
1	무정	계몽소설	개회기·일제	민족적 현실 자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2	고향	액자소설	일제, 농촌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의 참혹상 폭로
3	배따라기	액자 구조	평양, 대동강	오해가 빚은 형제간의 비극
4	만세전	중편	1918년 겨울 동경과 서울	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5	화수분	순수, 액자	자연, 인도주의	가난한 부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의미
6	홍염	경향	1920년경 겨울, 현실고발	일제하 조선인의 비참한 삶과 저항
7	운수 좋은 날	사실주의	일제 서울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층의 비극적 삶
8	감자	사실주의	농촌, 도시빈민굴	현실의 추악함과 인간의 존엄성 상실

◎ 1930년~1945년대 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	주 제
1	붉은 산	단편. 순수	일제. 만주촌	식민지 시대 만주 이주민들의 고통스런 삶과 만족애
2	피로	단편. 심리	1930년대. 서울	일제하 도시공간에서 빚어지는 잡다한 삶의 병리현상과 현실적 피로
3	천변 풍경	장편. 세대	30년대. 청계천변	30년대 서울 중산층 및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
4	만무방	단편	30년대. 강원도산골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상
5	봄·봄	단편. 농촌	30년대 봄. 강원도 산골	교활한 장인과 어리숙한 데릴사위의 해학적 갈등
6	날개	단편. 심리	일제. 서울	도착된 삶과 자아분열 속에서 본래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7	무녀도	단편. 액자	개화기 경주 부근	토속문화와 외래문화의 갈등이 빚은 혈육간의 비극적 종말
8	탁류	장편. 사회	30년대 군산	일제 강점기 혼탁한 사회 속에서 오염되고 파멸해 가는 삶의 모습
9	태평 천하	장편. 풍자	36~7년 서울 윤직원 영감 집과 주변	부정적 인물들을 통해서 파악한 식민지 시기 퇴락한 삶의 비판
10	치숙	단편. 풍자	일제. 서울	일제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와의 갈등
11	별	단편. 통과	가을. 대동강변 어느 마을	자아 성숙의 과정
12	패강령	단편	30년대. 평양 대동강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의 비애
13	메밀꽃 필 무렵	단편	봉평장	본연적 인간 생활의 서정적 미화
14	사하촌	단편	농촌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의식
15	동백꽃	단편	농촌	산골마을 청소년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
16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서울	한 지식인의 외로움과 이상·현실에 대한 갈등
17	사랑 손님과 어머니	"	시골 작은 읍	어린 동심의 눈으로 바라 본 성인의 연정
18	삼대	장편	서울(1920년대)	식민지 현실 속에서의 세대간·계층간 갈등
19	서편제	연작장편	전라도 서남	한울 초월하여 집념을 승화시킨 고귀한 예술인의 정신
20	바위	단편	북바위 신앙	한 여인의 비원과 절망 죽음
21	광화사	단편	인간 속세와 격리된 자연 환경	한 화공의 일생을 통해 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비극
22	백치 아다다	"	평북 선천지방의 실제담	정신적 행복을 회구하는 한 연인의 삶과 그 비극적 운명

◎ 1946~1950년대 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	주 제
1	논 이야기	단편. 풍자	동학. 한일합방. 8·15	국가의 토지정책에 대한 비판
2	역마	단편. 순수	화개 장터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됨
3	두 과산	단편	서울	사회적 혼란기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되는 인간의 모습
4	북간도	장편	해방까지 북간도	한민족의 북간도 개척사에서 보이는 저항과 창조역사
5	목넘이마을의 개	단편. 액자	식민지 시대 평안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6	학	단편	6·25 직후. 삼팔 접경 북쪽 마을	좌우익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는 따뜻한 인간애
7	오발탄	단편. 전후	6·25 직후. 궁핍한 시대	선량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
8	유예	단편. 전후	6·25 전쟁 중 겨울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
9	비오는 날	단편. 전후	여름 비오는 날. 부산 동래	전후의 무기력한 삶과 인간성 회복
10	어둠 속에 찍힌 관화	단편. 액자	6·25전쟁의 피난길. 대구	생명에 대한 외경과 직업에 대한 집착 사이의 갈등
11	불신시대	단편. 전후		혼란과 사회의 부정에 대한 분노와 고발
12	카인의 후예	장편	해방 전후	분단된 민족의 비극
13	독짓는 늙은이	단편	시골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집착과 자기 삶의 완성을 염원하는 장인 정신
14	불꽃	"	공산주의 만행 고발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 갈등을 극복하고 양심적 고발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비장한 결의
15	수난 이대	"	6·25 직후. 서울	수난으로 일관된 현대사의 단면과 그 극복 의지
16	젊은 느티나무	단편	6·25 이후. 촌	현실을 극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17	바비도	"	14·5C 영국교회 사회	신념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
18	해방전후	중편	해방전후	해방 후 나타난 지식인의 갈등

◎ 1960년대 이후의 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	주 제
1	광장	장편	타고르 호에서의 이틀. 광복→ 6·25. 남과 북	분단과정과 비극 속에서 고뇌하 는 지식인의 모습
2	꺼배판 리	단편	광복전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 신하는 인간에 대한 변신
3	불신 시대	단편. 전후	9·28수복 후. 서울	혼란과 사회의 부정에 대한 분노 와 고발
4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단편	해변 마을과 도시	도시적 삶에서 비롯된 개별화 현 상과 문화의 황폐화
5	서울. 1964년 겨울	단편	1964년 겨울. 서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느끼는 삶의 공동성(空洞性)과 개인성
6	모래톱 이야기	단편. 농촌. 참여	60년대 낙동강 유역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7	수라도	중편	일제-한국 초. 대동강 유역	선비의 애국지절과 현모양처의 인고의 미덕과 종교적 의지
8	까치 소리	단편. 액자	6·25 전쟁 중. 시골	까치 소리에 얽힌 속신과 전쟁의 참상에 놀린 비극적인 삶
9	병신과 머저리	단편. 액자	6·25 전쟁과 그 후. 어 느 도시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을 통한 아픔과 그 극복 의지
10	침물선	단편	전쟁 시기. 해변마을	세계에 대한 본질 인식의 과정
11	나복	장편	6·25 전쟁 중 서울	진정한 예술가의 성숙 과정
12	관촌 수필-일락서 산	연작. 중편	충청도 관촌 부락	공동체적 삶의 파괴와 농촌의 피 폐
13	어둠의 혼	단편. 순수	광복 직후	삶의 외경을 통한 고통스러운 현 실 극복 의지
14	무진 기행	단편. 순수	60년대. 무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15	풍경 A	단편	시골 우체국	기쁨과 슬픔의 양면적인 인생
16	동행	단편	눈내리는 밤. 산중	한 인간의 겪는 고뇌와 갈등
17	장마	단편	6·25 의 상처	민족적 보편 정서를 통한 이념 대립에 의한 비극의 극복
18	압록강은 흐른다	장편. 자서전적	한국. 파리	개화기의 여러 양상과 새로운 세 계에 대한 동경
19	올화	장편	어느 동네. 샤머니즘의 형상화	신앙의 대립과 혈연에 대한 애착 과 집념
20	줄	단편. 액자형식	C읍. 줄광대	장인정신의 상실에 대한 아쉬움 과 현대인의 가치상실 고발
21	나무들 비탈에 서 다	장편.	6·25 전란	6·25 전란이 젊은이들에게 남겨 놓은 깊은 상처의 형상화
22	난쟁이가 쏘아올 린 작은공	난장이 연작	서울 행당동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깊어 지는 인간 소외 현상 고발

◎ 외국 소설

일련 번호	작 품 명	갈 래	배 경(성격)	주 제
1	돈키호테	장편. 풍자	17C. 스페인	돈키호테의 흥미진진한 모험담
2	부활	장편. 순수	19C. 러시아	한 인간의 정신적 부활
3	목걸이	단편	교훈적. 비판적	어리석은 욕망이 가져온 비극
4	두 친구	단편	전쟁의 참상(주제)	환경에 결정되는 인간
5	귀향	단편	한낫 이후. 해변 마을	실종 20년만에 살아 돌아온 어부에 의해 일어나는 가족의 파문
6	외투	단편.	겨울.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개인의 성실한 삶과 그에게 냉담하며 조소를 보내는 세태 풍자
7	걸리버 여행기	장편		이상한 나라에서의 모험
8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장편. 서한체	고백적. 낭만적	아름다움을 향한 순수한 열정
9	죄와 벌	장편. 심리	19C. 모스크바 및 시베리아	인간의 양심과 구원
10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장편	19C. 러시아	인간의 부도덕과 탐욕에 대한 비판
11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중편	소련. 시베리아 형무소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의 진상
12	고리오 영감	장편	19C. 프랑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세의 노예가 되어 파멸되어 가는 인간상
13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장편	30년대. 스페인 내란	여인과의 사랑과 전쟁의 비극에 대한 지식인의 주체적 결단
14	인디언 부락	단편	저녁에서 새벽까지. 인디언 마을	인디언 여자의 수술 과정과 그 남편의 죽음을 본 녀의 다짐
15	크눌프	중편. 연작	1910년대 고향 게르버자우	인간적 구속을 떠난 자유인의 삶의 의미
16	수레바퀴 밑에서	장편. 성장	19C. 고향 슈발츠발트	자연과의 교감을 잃어버린 어린 학생이 겪는 좌절을 통한 근대 교육 제도 비판
17	크리스마스 선물	단편	크리스마스 날 부부의 선물	부부의 진실한 사랑
18	노인과 바다	중편	멕시코 바다	인생에서 가져야 할 용기와 믿음
19	분노의 포도	장편	노동자의 비참한 삶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과 고난 극복의 의지
20	데미안	장편. 성장	제1차세계대전. 독일	자기 발견을 통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
21	변신	중편	현대. 독일 소시민 가정	고독한 인간 존재의 허무
22	페스트	장편	페스트. 알제리의 오랑 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
23	아큐정전	장편. 풍자	신해혁명 당시의 중국	권력과 술수에 희생되는 아큐의 비극적 일생
24	의사 지바고	장편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혁명의 실상과 남녀간의 사랑



25	설국	중편	일본, 눈내리는 온천장 마을	인간의 사랑과 그 숙명적 비극성
26	포로의 옷	단편	이집트, 담배장수	식민지 생활을 겪은 이집트인의 고뇌와 아픔
27	요사이 어느하루	단편	남미, 정치 비판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식
28	데카메론	장편	10일 이야기	새로운 인간상 표출
29	등대지기	단편, 순수	제1차세계대전 직후, 파나마 운하의 등대	조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30	좁은 문	장편	제롬의 회상형식 소설	금욕주의적인 이상을 간직한 정신적인 사랑의 비극
31	괴로운 길	단편	산행	존재의 본질 발견과 삶의 초탈
32	삼국지연의	장편 역사소설	후한말 혼란시기	위·촉·오의 흥망성쇠
33	미뉴에트	단편	프랑스, 무용수	사라지는 것의 아쉬움과 비애
34	도련님	단편	시골 중학교	성장기에 경험한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
35	이중의 희생	서간체 소설	독백체	오해 해소의 진실한 사랑
36	고향	단편	20년만에 돌아 온 고향	발전 없이 변화만 보이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 Ⅲ. 연구 대상 작품 학습 요소

〈단원명, 수록 내용, 학습 목표, 학습 문제〉

#### 1. 「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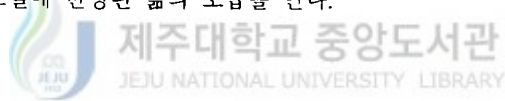
##### 1) 소단원명

연번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수록범위
1	박경신 외 4인	금성교과서(주)	소설의 특성과 갈래	123~124회
2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사(주)	전환기에서의 저항과 창조	"
3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사(주)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
4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소설의 본질과 특성	"
5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세월의 파도를 넘어	124~125회
6	성기조	학문사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
7	이문규 외 1인	선영사	한국문학의 흐름	2~3회
8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문학과 현실	123~124회
9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민족문학의 주체적 정립과 발전	88~89회
10	우한용 외 3인	동아출판사	일제강점기의 문학	124~126회
11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현대소설의 등장	123약간~124회

##### 2) 학습 목표

- ① · 소설의 개념을 안다.
  - 소설의 특징을 안다.
  - 작품을 통한 소설의 특성과 갈래를 파악한다.
- ② · 이 시기 세계 문학에 대해 기초적 이해와 작품 감상을 한다.
  - 문학적 전환을 위한 내용, 형식상의 다양한 모색을 이해한다.
  -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위기에 대한 문학의 대응 양상들을 이해한다.
  - 근대로의 전환기의 민족사적 과제와 그것에 부응한 문학의 역할을 이해한다.
  - 문학 작품의 발표 매체는 무엇이었으며, 현대 문학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자.
- ③ ·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한다.
  - 문체에서 근대 소설적 특징을 찾아 본다.
  - 문학사적 의의를 알아본다.
- ④ · 당대의 사회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안다.
  - 작품에 나타난 갈등 구조를 파악한다.

5. ·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세계가 보여 주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다.
  - 개인의 어떻게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6. ·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 성격,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안다.
  - 작품에서 배경이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안다.
7. · 현대 소설의 특징, 당시의 현실적 배경, 근대화의 과제를 파악한다.
8. · 현대 소설의 특징, 당시의 현실적 배경, 근대화의 과제를 파악한다.
9. · 신소설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 작품에 그려진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10. · 일제 강점기의 문학 작품 가운데 시대상이 반영된 양상을 찾아보자.
  - 이 시대 문학의 성격을 사회적 관심과 예술적 관심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
  - 일제 강점기의 민족 독립 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이의 문학에 대한 영향도 찾아보자.
  - 이 시대의 문학이 이후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11. · 현대 소설의 등장과 그 배경을 안다.
  - 민족 저항기 소설의 갈래와 특징을 안다.
  - 민족 저항기 소설에 반영된 삶의 모습을 안다.



### 3) 학습 문제

- ① · 고대 소설이나 신소설보다 발전된 측면을 말해 보자.
  - 갈등과 화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 이 작품 전체를 읽고 '형식, 선형, 영채'를 중심으로 인물의 관계망을 도표화하고 그 성격을 말해 보자.
- ② · 이 작품의 시점에 대해 알아 보자.
  - 본문에서 이형식은 삼각 애정의 갈등에 처해 있는 인물에서 어떤 인물로 변모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 영채와 선형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 등장 인물이 민족주의와 계몽주의가 결합하여 발산하는 강렬한 힘이 주는 감동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보자.
- ③ · 문체와 구성상의 근대적 면모를 고전 소설 및 신소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자.

- 작가 이광수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 「무정」의 상호 관계를 조사해 보자.
- 작중 인물인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의 성격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발표해 보자.
- 개화와 계몽을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
- ④ ·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전체 줄거리를 파악해 보자.
- 인물 간의 갈등 양상과 그 갈등의 해소가 어떤 계기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 보자.
- 당대의 사회와 인간 삶의 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고전 소설 및 신소설과 비교할 때, 「무정」이 지니고 있는 근대 소설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 보자.
- ⑤ · 이형식은 구여성 영채와 신여성 선영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심리적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자.
- 이 작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을 생각해 보자.
- 이형식이 생물학을 전공하여 교육자가 되겠다는 부분을 읽어 보고, 서술자가 이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설명해 보자.
- 「혈의 누」의 옥련과 「무정」의 형식의 공통점을 비교하여 이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해 보자.
- 문체적인 특징을 신소설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보자.
- 「무정」을 계몽주의 문학으로 평가할만한 대목을 찾아 보자.
- ⑥ · 본문에서 직접 표현법과 간접 표현법을 찾아 보자.
- 가치관과 사고의 방향이 바뀌는 인물을 두 명 찾고, 그 변화의 과정을 본문에서 찾아 보자.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두 명 찾아 보자.
-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찾아 보자.
- ⑦ · 「무정」이 한국 현대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인 이유를 알아 보자.
- 인용한 대목은 풍속의 측면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면 어떤 점이 그런가를 밝혀 보자.
- 선형의 인물 묘사와 「춘향전」에서의 춘향의 인물 묘사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자.
- 과거 시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검토해 보자.
- 이광수의 계몽주의와 민족의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알아 보자.
- ⑧ · 한국 현대사에 차지하는 문학사적 가치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현대 소설의 구성상, 표현상, 주제상의 특징을 조사해 보자.
  - 계몽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난 부분을 지적해 보자.
  - 개인과 민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해 보자.
  - 「혈의 누」와 「감자」의 문체상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해 보자.
9. · 줄거리를 요약하고, 영채의 주된 갈등을 공부하자.
- 서술자의 특성을 알아 보고, 문체의 특성을 개화기 소설과 비교하여 보자.
  - 영채의 생각을 통해 당시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 보고 병욱의 생각은 그 시대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가?
  - 신소설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해 보고, 작자의 선각자 의식이 나타난 부분이 있는가?
10. ·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의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갈등이 사회적 지향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
-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개화기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러한 인물 설정이 중요한 까닭을 말해 보자.
  - 주인공들의 사회적 자아로서의 자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말해 보자.
  - 인물들 사이에 교육적인 의미가 매우 짙게 베어 있다.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예를 찾아 보자.
11. · 이형식, 박영채, 김선영의 삼각 관계를 중심 구조로 하여, 구도덕에 속해 있는 영채와 신도덕에 속해 있는 선형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도기의 청년 이형식을 그리고 있다. 이형식이 갈등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말해 보자.
- 민족주의적인 입장과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이 소설은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찾아 보자.
  - 신소설의 문장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결말 처리에 있어서 구소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 우리 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로 보게 되는 이유를 5가지만 말해 보자.

## 2. 「운수 좋은 날」

### 1) 소단원명

연번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수록범위
1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소설의 구성	전문
2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작품의 내면화	위기~끝
3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역사와 현실을 통한 가치	전문
4	김용직 외 1인	대일서적	스토리와 플롯	"
5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인물과 배경	위기단락 약간만 생략
6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구성과 시점	전문
7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주제와 스토리	"
8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소설의 구성	"
9	권영민	(주)지학사	소설의 세계	"
10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주)	소설의 구성과 시점	발단 약간과 결말부분

### 2) 학습 목표

- ① ·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안다.
  - 구성의 단계에 대해 안다.
  -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구조의 변화에 대해 안다.
- ② · 작품에 제시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읽는다.
  -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 이 작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③ · 이 소설이 창작된 시대 배경에 대하여 안다.
  - 이 소설의 표현 수법에 대하여 안다.
  - 이 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적 요소를 안다.
- ④ · 이 소설의 플롯을 나누어 보고, 스토리와 플롯의 관계, 플롯의 예술적 의의 등을 알아 보자.
- ⑤ · 인물의 유형을 안다.
  - 배경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한다.
  - 인물과 배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 ⑥ · 이 작품의 플롯 전개상 특징을 안다.
  - 이 작품에서 화자와 인물과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 이 작품에서 '비'와 주제와의 관계를 안다.

- ⑦ · 주제와 스토리를 구별한다.
  - 주제가 말하는 철학과 사상을 안다.
- ⑧ · 소설의 구성 방법과 구성의 구실에 대해 이해한다.
  - 소설을 감상하고 구성적 특성을 파악한다.
- ⑨ · 소설의 본질이 무엇이며, 소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소설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⑩ · 작품에 반영된 당시 하층민의 삶의 고뇌를 이해한다.
  - 이 소설의 아이러니적 구조인 까닭과 그 효과를 알아본다.
  - 가난으로 인한 비극적 삶을 다루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 본다.

### 3) 학습 문제

- ① · 작품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의 내포적 의미를 말해 보자.
  - 사실주의 수법이 잘 나타난 곳을 말해 보자.
  - 김침지의 심리 변화 과정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자.
  - '운수 좋은 날'의 구성 단계에 따라 나누고 구성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 ② ·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을 완전한 문장으로 완결시켜 보자.
  -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두 가지 뜻은 무엇인가?
  -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며, 김침지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 치삼에게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김침지의 내면적 갈등은 무엇이며, 김침지가 '운수'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삶의 어떤 면과 관계가 깊겠는가?
  - 1920년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또 오늘날에도 이런 반어적 삶이 있겠는가?
  - 이 작품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 ③ · 다음 어휘의 뜻을 풀이해 보자.
  - 〈새침하게〉, 〈땃바람에〉, 〈달포〉
  - 구절 이해 -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이 작품의 문학적 경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 사용된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 여기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을 간단히 말해 보자.
- ④ · 이 소설의 플롯을 분석하여 그 단계와 내용을 말해 보자.
  - 이 소설이 지닌 특성을 언어 사용상, 성격 구현상, 플롯 전개상의 관점에서 말해 보자.
  - 제목과 끝맺음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이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의 '인생을 위한 가치'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라.
- ⑤ · 시간적·사회적·자연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 보고, 배경이 사건 전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하여 말해 보자.
  - 처음과 끝 부분에 비가 내리는 자연적 배경 묘사가 주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 김침지의 인물 성격에 대하여 알아 보고, 그 역할을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은 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같이 나타나 있다. 그 부분을 찾아보고, 그 기능에 대하여 말해 보자.
  - 이 작품처럼 결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한국 문학 작품과 세계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이런 소설의 결말이 주는 효과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 ⑥ · 이 작품의 구성을 분석해 보자.
  - 복선을 찾아보고, 그 역할을 말해 보자.
  - 고전 소설과 이 작품의 플롯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화자와 등장 인물과의 거리'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김동인의 '감자'와 비교하여 보자.
  - 배경으로 등장하는 '비'의 역할을 '비오는 날(손창섭)', '소낙비(김유정)'와 함께 생각해 보자.
- ⑦ · 이야기와 주제의 차이점을 구별해 보자.
  -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가 현대 소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자.
  - '운수 좋은 날'은 제목과 스토리가 서로 상반되는 역설성을 보이는데, 이 역설성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 ⑧ · 이 소설의 구성상 특징을 밝혀 보자.
  - 구성 단계에 따라 분석해 보자.
  -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아내에 대한 욕설과 구타, 선술집에서의 허세, 집과의 거리에 따른 심리의 변화, 약과 설령탕'에 착안하여 밝혀 보자.



-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밝혀 보자.
- 9 · 이 작품의 구성상 특징을 말해 보자.
  -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과 결말 부분의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 단편 소설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를 찾아 써보자.
  - 이 작품의 배경을 원고지 2매 정도로 요약해 보자.
  -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사실주의적 수법을 활용한 부분을 찾아보자.
  - 어구 의미 파악 - 새침하게, 재수가 옴 붙어서, 조랑복, 태깅, 결신결신한 등
- 10 ·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반어적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김첨지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 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 전형적 인물로서의 김첨지라는 인물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인물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중간중간에 비극적 결말을 향한 복선이 깔려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야기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이 작품에 나타난 심리 묘사를 이상의 ‘날개’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토의해 보자.



### 3. 「메밀꽃 필 무렵」

#### 1) 소단원명

연번	저 자	출 판 사	소단원명	수 록 범 위
1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소설의 인물과 배경	전개 - 결말
2	윤병로 외 3인	(주)노벨문화사	문학의 구조	전개 약간 생략
3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묘사, 설명, 문체	과거 회상부분
4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구성과 구조	전개 앞 생략
5	김태준 외 3인	(주)민문고	구성과 배경	전문
6	권영민	(주)지학사	소설의 배경	"
7	김봉근 외 1인	지학사	갈등과 화해	"
8	오세영 외 1인	천재교육(주)	인간과 언어의 탐구	발단 후반만 생략
9	성기조	학문사	인물과 배경	전문
10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주)	현대 문학의 본격적 전개	작품 후반

#### 2) 학습 요소

- ① · 인물과 배경의 개념을 안다.
  - 인물의 유형과 인물 제시 방법을 안다.
  - 배경의 역할과 종류를 안다.
- ② ·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하여 안다.
  - 이 소설의 미적 구조의 특징을 이해한다.
  - 이 소설에 나타난 언어와 작품 내용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③ · 이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에서의 언어 표현 요소가 갖는 미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 ④ · 구성의 본질과 종류를 안다.
  - 구조의 본질과 종류를 안다.
  - 작품의 구성과 구조를 파악한다.
- ⑤ · 소설 배경의 개념과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하여 안다.
  - 소설을 감상하고 배경의 구실을 파악한다.
- ⑥ · 이 작품의 성격 창조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이 작품을 통해 인물과 배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 ⑦ · 인물 제시의 방법 및 문체상의 특징을 안다.
  - 한국 민족의 인연, 유랑, 만남의 원형 의식을 살펴본다.

- ⑧ ·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작중 인물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 ⑨ · 소설 작품을 읽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 소설 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배경이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다.
  - 소설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⑩ · 소설의 배경, 분위기, 구성 방식, 구조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보자.

### 3) 학습 문제

- ① ·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달밤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② <어휘 이해>
  - 다음 어휘들의 뜻을 쉬운 말로 새겨 보자.  
<궁싯거리고, 칩칩스럽게, 각다귀, 엷둑배기, 트팀전 …….>
  - <구절 이해>
    - 이 작품에서 감각적 표현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찾아 그 특징을 말해 보자.
    - 이 소설에서 다음 제재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달, 당나귀>
  - <내용 이해>
    - 이 소설을 다른 소설과 비교하여, 구성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이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인생관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대로 이야기해 보자.
    - 이 작품에 나타난 향토적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다음 두 가지면에서 생각해 보자.
- ③ · 이 소설의 문체상의 특성을 말해 보라.
  - 이 소설을 '서정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라.
  - 이 소설이 주는 예술적 감동의 근원을 인물, 사건, 배경, 문체의 관점에서 말해 보라.
- ④ ·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낮에서 밤으로 이동된다. 허생원의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의 차이를 열거해 보자.
  - 이 소설의 구성을 알아보고, 절정 부분을 이루는 사건을 지적해 보자.
  - 이 소설에는 허 생원과 나귀의 서로 일치된 점이 몇 가지 나온다. 어떤 점이 그

- 러한지 있는대로 찾아 보자.
- 허 생원의 삶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 이 작품은 '핏줄의 만남'이라는 운명적 동기를 핵으로 하고 있다. 핏줄의 만남에 동원된 소재를 찾아 보자.
5. 이 작품의 자연적 배경과 그것이 주제의 표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자.
- 메밀꽃이 핀 자연적 배경과 인물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여 보자.
  - 불행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하여 보자.
  - 이 소설에서 허 생원과 나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하여 보자.
  - 허 생원의 떠돌이 삶과 동이의 앞으로 전개될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여 보자.
  - 이 소설에 나타난 배경과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자.
6.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의 내용을 시간의 이동에 따라 구분지어 정리해 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배경 묘사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 나타나는 지명(地名)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작품의 내용과 연결시켜 그 배경의 이동을 살펴 보자.
  - 이 작품의 주인공 허 생원과 나귀를 서로 대비시켜 특성을 비교해 보자.
  - 이 작품의 서두에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부분과 결말의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자.
  - 작가 이효석의 문단 활동을 조사해 보자.
7. 이 작품의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하여 다음을 공부해 보자.
- (1) 허 생원과 당나귀가 동일시되는 사건들을 말해 보자.
  - (2) 작자의 다른 소설에서 인간과 짐승을 상응시키는 경우를 찾아보자.
  - (3) 허 생원과 동이의 성격을, 본문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 (4) 허 생원의 삶을 깨닫게 해 주는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해 보자.
    - (1)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찾아, 그 뜻을 말해 보자.
    - (2) 달밤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쓰인 수사법을 알아보자.

- '헤어짐과 만남'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형 의식을 고려하면서 다음을 공부해 보자.
  - (1) 이 작품과 '주몽 신화'의 구조를 비교해 보자.
  - (2) 이 작품과 '혈의 누'의 구조를 비교해 보자.
  - (3) 본문에서 허생원이 가족과 상봉하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보자.
- 작자의 작품 경향에 대하여 다음을 공부해 보자.
  - (1) 작자의 문학적 업적과 작품 경향의 변모 양상을 조사해 보자.
  - (2) 이 작품에서 토속적 소재를 다루면서도 은연중 나타나는 도시적 감수성의 표징을 찾아 보자.
- 8.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 이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 나귀는 등장 인물 가운데 누구에 비견될 수 있으며, 나귀와 새끼의 관계는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아보자.
  - 등장 인물이 개성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 9. · '메밀꽃 필 무렵'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찾아보자.
  - (2) 이 작품에서 배경 묘사가 뛰어난 부분을 찾아보자.
  - (3) 허생원, 조 선달, 동이의 공간 이동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4) 이 작품의 배경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찾아보자.
  - (5) 시골장과 장들뱅이의 에환을 생각하면서 시골장의 풍경을 묘사해 보자.
  - 이 작품을 읽고, 자신이 읽은 소설 작품들 가운데서 '배경' 묘사가 인상적이었던 작품을 찾아 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발표해 보자.
- 10. · 본문 서두에 나오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달에 푸르게 젖었다' 등의 표현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 조선달이 허생원의 로맨스를 여러 번 들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보자.
  - 허생원과 나귀의 유사성 내지는 일체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있는대로 찾아보자.
  - 허생원을 묘사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허생원과 동이의 '혈연 관계'를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 4. 「광장」

##### 1) 소단원명

연번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수록범위
1	박경신 외 3인	금성교과서(주)	역사의 인식(認識)	후반 회상 부분
2	김윤식 외 1인	한샘출판(주)	산업화와 민족 문학의 새로운 단계	"
3	구인환 외 1인	한샘출판(주)	현대(現代)의 문학	"
4	최동호 외 3인	대한교과서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결말 부분
5	한계전 외 2인	대한교과서	제재와 주제	i 과 같음
6	성기조	학문사	소설과 현실 상황	4 와 같음
7	김봉규 외 1인	지학사	갈등(葛藤)과 화해(和解)	결말 부분
8	박갑수 외 2인	지학사	분단 인식과 인간 탐구의 소설	i 과 같음
9	권영민	(주)지학사	한국 광복 이후의 문학	"
10	김대행 외 1인	(주)교학사	소설의 구성	결말 일부분
11	오세영 외 1인	천재교육(주)	역사(歷史)의 거울	"
12	김용직 외 1인	대일도서	역사 인식과 현실 대응	"
13	김대준 외 3인	(주)민문고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	"
14	우한용 외 3인	동아출판사	우리 시대의 문학	①과 같음
15	남미영 외 4인	동아서적(주)	역사적 삶의 소설화	"

##### 2) 학습 목표

- ① . 소설과 역사와의 관계를 안다.
  - . 작가와 역사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 .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을 파악한다.
- ② .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의 추이를 통하여 민족과 개인의 관계, 체제와 관련된 인간의 삶의 문제 등을 탐구해 보자.
- ③ . 이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해석해 본다.
  - . '광장'과 '밀실'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본다.
  - . 이 작품의 관념 소설적 특징들을 파악한다.
- ④ . 이 작품의 배경을 안다.
  - . 이 작품에 구현된 사회 문제와 인간 존재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안다.
- ⑤ . 제재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다.
  - . 주제가 시대별로 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주제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이해한다.
- 6. · 소설 작품에 반영된 현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 등장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소설 작품에 나타난 현실 대응 방식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다.
- 7. · 이 소설의 주제와 배경 사상 및 상징적 기법을 파악한다.
  - 한국 문학사에서 분단 문학이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 8. · 주인공의 의식과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
  - 광장과 밀실,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 9. ·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적(內面的) 갈등과 고뇌가 장편 소설의 형식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 10. ·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사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 11. · 소설의 구조 유형을 이해한다.
  - 소설의 배경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 12. · 이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역사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양상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 13. · 역사가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한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
  - 문학 작품에 나오는 시대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안다.
- 14. · 우리 시대의 주요 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정리해 보자.
  - 우리 시대 문학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을 정리해 보자.
  - 우리 시대 문학과 시대 상황은 어떤 상호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15. · 국토 분단기 소설의 문학의 흐름을 안다.
  - 국토 분단기 소설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 국토 분단기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안다.

3) 학습 문제

1. · 주인공이 보인 비극적 종말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에 나오는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다른 역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 주인공 이명준이 북한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해 보자.
  - 다음 두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주인공 이명준의 성격을 알아보자.

(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게으른 '즉자태(卽自態)'였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理想)의 결여태(結如態)'였다. 키에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광신(狂信)이 무섭다면 무이상(無理想)은 슬펐다.  
(나)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주장마다' 들어차서 '올라고 내가 왔던가 웃으라고 왔던가'를 심각히 고민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설립 허가를 발급한다.

- 주인공이 인식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 주인공의 중립국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근본 이유를 알아보고, 주인공의 중립국 선택 과정을 비판해 보자.
3. ·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선택의 귀결이 죽음(자살)으로 이르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 이 작품이 지닌 관념 소설적 특징들을 지적해 보자.
  -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밀실과 광장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 이 작품은 1960년대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이 작품과 1950년대 전후 문학과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 다음 작품들을 더 읽어 보고, 1960년대 소설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자.
    - (1)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2) 이청준, 「퇴원」
  - 이명준이 놓였던 상황 속에서 좀더 나은 선택을 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4. ·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비판되고 있다. 그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비교하여 보자.



-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이다. 그것은 바로 광장과 밀실의 통로를 발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광장과 밀실의 통로'란 인간 존재의 어떤 측면을 상징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여러 부분에 갈매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갈매기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는 두마리의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무덤 속에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 마침내 이명준은 갈매기들의 사랑의 손짓에 응하여 죽음의 결단을 내린다. 여기서 갈매기는 무엇을 상징하며, 이명준이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 '분단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자.
5. 이 작품의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자.
- 이 작품의 서술자는 '공산 낙원의 재현'을 기독교에 비유하고 있다. '코뮤니즘'에 있어서의 마르틴 루터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의 주인공 이명준이 북쪽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코뮤니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자.
  - 이 작품은 해방 직후부터 6·25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작품 전체를 통독(通讀)하면서 주인공의 중립국 선택 과정을 정리해 보자.
  - 이 작품은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되었다. 4·19 혁명의 중요한 정신적 지향인 '자유'의 문제를 이 작품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계속해서 '중립국'으로 갈 것을 외친다. 유토피아로서의 중립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보자.
  - 이 작품에 나오는 다음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 (1)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순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 (2)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6. '광장'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주인공 '이명준'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 (2) 이명준이 남한을 버리고 월북한 까닭은 무엇일까?
  - (3) 이명준이 제3국행 배를 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 남북 분단의 문제가 우리 민족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작품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

· 이 작품을 읽고 다음에 관해 토의해 보자.

(1) 최인훈의 '광장'과 황순원의 '학'에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

(2) 위 작품의 주인공들인 '이명준'과 '성삼'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과 삶의 태도

⑦ · 이 작품의 전체를 읽고, 등장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해 보자.

(1) 혁명가인 명준의 아버지의 행동이 무기력한 이유를 비판해 보자.

(2) 윤애와 은혜에 대한 명준의 사랑을 비교해 보고, 이 작품에서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작품의 결말에서 명준은 갈매기를 따라 바다속에 뛰어든다. 명준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해 보자.

(1) 본문의 구절들이 비유하고 있는 의미를 풀어 보자.

(2)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풀어 보고, 그러한 구분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자.

(3) 주인공이 중립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요약해 보자.

·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해 보자.

(1) 이 작품은 1960년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2) 1960년대 초에야 비로소 분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의 출현이 가능했다는데, 그 의의를 설명해 보자.

(3) 분단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다룬 작품들을 더 조사해 보자.

⑧ · '광장'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난 장면을 찾아, 갈등의 내용을 말해 보자.

(2) 이명준이 바라본 남한과 북한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이 작품에 나타난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4) 이명준이 바다에 뛰어든 행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⑨ · 이 작품의 서두에서 묘사되고 있는 주인공의 성격의 특징에 대해 조사해 보자.

· 이 작품의 서두에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 모든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종결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 문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이 작품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 읽고, 남한과 북한 사회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이 작품의 제목 '광장'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서 '광장'에 그려진 주인공의 삶의 태도에 대해 토론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작가 최인훈의 작품 세계에 대해 조사해 보자.

#### ⑩ <내용 이해>

- 이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하자.
- (1) 주인공과 두 여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자.
- (2)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 보자.

#### <배경의 이해>

- 이 작품의 배경인 바다를 중심으로 공부하자.
- (1) 파도는 주인공의 어떤 심리 상태와 동질적인가?
- (2) 바다는 탁 트인 곳이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주인공의 처지와 관련시켜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보자.

#### <상징의 이해>

- 다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자.
- (1) 타고르 호를 뒤따르던 두 마리의 갈매기
- (2) 이명준의 죽음

####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상징이라 본다면 '광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자.

- ⑪ · '광장' 전편을 읽고, 주인공의 성격을 그의 이념적 변화 과정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자.
- '광장' 전편을 읽고, 주인공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정리해 보자.

- '광장' 전편을 읽고, 주인공이 중립국을 택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
- '광장'의 개작 과정을 알아보자.
- '광장'에서 주인공이 중립국을 선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비판해 보자.

12 <토의 학습>

- 이 소설의 전편을 통해 배경이 된 역사 현실은 어떤 것인지 말해 보라.
- 이 소설의 주인공 이명준의 갈등의 근원을 말해 보라.
- 이 소설의 제목 '광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라.
- 이명준의 죽음이 의미하는 역사적 의미를 말해 보라.

13 ·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작품의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다음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 보자.
  - (1) 이 작품의 밑줄과 광장의 의미를 알아보자.
  - (2) 주인공이 중립국을 선택하고, 결국 자살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 (3) 주인공 이명준이 남과 북을 오가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여 보자.

14 · 포로가 된 주인공이 제3국을 택한 이유를 말해 보자.

- 역사의 진보에 대한 명준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함을 나타낸 부분을 찾아보자.
- 이 소설의 곳곳에 보이는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문체는 이 소설의 주제를 나타내는 데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음의 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여기도 기를 꽂을 빈터는 없었다. 위대한 것들은 깡그리 일찍이 말해진 후였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보다. 어김없이 움직이기만 하라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북조선에는 혁명이 없었던 탓일 것 같았다. 인민 정권은,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여지며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 약소 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빛'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바스티유의 노여움과 기쁨도 없고, 동궁(冬宮) 습격의 아슬아슬함도 없다. 길로틴에서 흐르던 피를 본 조선 인민은 없으며, 동상과 조각을 망치로 부수며, 대리석 계단으로 몰려 올라가서, 황제의 안방에 불을 지르던 횃불을 들어 본 조선 인민은 없다.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이다. 30년 전에 흥분이 있었다는 풍문을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감정의 천재다. 1789년에 있었던 흥분의 얘기를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천재다. 하물며 남의 나라의, 세계는 하나라? 그건 그 흥분이 있었던 다음부터의 얘기다. 북조선 인민에게는 주체적인 혁명 체험이 없었다는 데 비극이 있었다.

- 15 · 광복 직후의 소설에는 어떤 작품이 있나 알아보고, 그 소설들이 추구했던 이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1950년대 소설을 크게 나누면, 전쟁 소설과 전후 소설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196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60년대 소설의 특징을 알아보자.
- 1970 연대에 발표된 소설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알아보자.

